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頁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朝鮮日報社

社說

再燃한長津水電 土地買收問題

當局에서난社會的主張

一

昭和八年 여름 長津水電 第一期 第二期工事基地 買收問題로 會社側과 住民側사이에 말성이되여 及其也 雙方의 衝突로 警察問題까지되엿든 事實은 아즉도 吾人의 記憶에 새롭거니와 이제 第一期工事도 거의 完成되여 今年가을부터는 第三期工事를 始作하게되엿스므로 會社側에서는 突然 第二期工事地와 第二侵水地基地買收에 着手하게되엿든데 買收必要地域은 面으로 四個面, 洞里로 十一個里에 涉하야 그地域內에 살든 四百餘戶의 住民은 數百年來로 사러오던 情든故鄕을 여이지 안흐면 안될 重大問題에 直面하게 되엿다. 그러나 여게서 問題되는 것은 累百年來로 사러오던 情든山川을 떠나게되는 心的問題가아니라 大財閥의 威力으로 會社側에서 土地價格을 無理하게 싸게評價하여가지고 이갑세 依하야 賣渡하라고 强要하는 物的問題이다.

二

昨日 本報에報道된 長津支局 通信에 依하면 會社側에서 所要土地買收에잇서 昭和八年의 第一期二期工事基地買收價格 同樣의地價로서 土地賣渡를 要求한다 하니 近年 土地景氣로 地價가 三四割 乃至 五六割이나 騰貴한 이때에 四年前廉價로 賣渡하라는것은 常識에 버서난主張이라는것보다도 地方住民을 無視하는 行動으로밧게 解釋할길이업다. 더욱히 水電會社土地買收交涉에잇서 地方住民의 利益保護를 爲하야 行政과 治安의 重任을 갓고 잇는 郡守와 署長이 會社員과 同行하여 그와가튼 廉價로 放賣하기를 勸誘하엿슬뿐아니라 乃終에는 地主를 駐在所에까지 다리고가서 極力勸告하엿다는 事實은 크게 遺憾으로 녁이지안흘수 업는일이다.

三

昭和八年 土地買收時에 會社側은 道知事의 指定價格에 依하야 買收한다고도하고 土地收用令을 適用하겟다고도하야 住民을 威脅한일이잇거니와 道知事指定價格에 依하거나 土地收用令에依하거나 모다 適當한 時價에依하여야할것은 勿論이다. 現在의 土地價가 四年前에比하야 宏壯히 騰貴한事實은 上述한바와갓거니와 現在時價에잇서서 特別히 考慮할點은 北鮮振興計劃 長津土地라할지라도 電力三十二萬킬로와트를 넘수잇는 世界的 大水電會社가 이미 생기엿다는 事實이다. 北鮮振興計劃이 한번發表되자 그一帶의 土地가 天井不知로 暴騰한 事實은 吾人이 熟知하는바이어니와 이것이 不可避의 現象이라면 世界的大水電會社가 長津에 생기므로 因하야 그隣近地帶의 地價가 暴騰할것은 資本制社會에 잇서서는 當然以上의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水電會社는 土地買收에잇서서 今日 一般的으로 地價騰貴한 事實以外에 會社自體의出現에依한 特殊事情까지 考慮에 너허야할것임에 不拘하고 도로혀 四年前의 廉價로 買收하려는것은 無理한 行動이라안할수업다.

■

長津水電事業은 軍事的으로도 關係가깁흔 事業이오 社會公益上으로도 必要한事業이니만치 一般營利會社에서 經營한다고 이것을 無視할수는업다. 따라서 當局에서도 이것을 助長하려할것은 勿論이나 그援助에 잇서서 住民의 利益을 害하여서는 안될것은 勿論이다. 이地方住民은 그大部分이 自作農이다. 瘠薄한土地에서 自作農으로 生計를겨우 支持하여가는 地方農民이 이땅을버리고 他處에가서 自作農으로 지나갈만한 地方이 朝鮮안에잇다면 몃몃군데나잇을것인가? 또代代로 사러오던 故鄕을 여이게되는 住民의 心的苦痛은 얼마나할것인가? 그리고 原價로 賣却하다니 그들이 아무른지 못할것이다 그들이 三十二萬키로와트의 大電力을 낼수잇는 地方에사러온다는 것은 그들의 利益으로 볼수잇스며 그들이 바더야할 補償임은 勿論이다. 軍事的으로보아 이事業이 絶對必要한 重大事業이라하면 그事業의 緊要한 程度에 依하야 이事業에必要한 物資를가진者에게는 그에相當한 報酬가 잇서야할것은 現社會의 原理요 原則이다. 이러한 모든點을 充分히 考慮에너허 當局은 이問題에잇서 善處하기를 바란다.

日中交涉折衝엔 孔祥熙氏가全權

蔣氏는廣西問題未解決理由로 南京不歸還을表明

【上海廿六日發同盟】中國側入電에依하면 實業部長吳鼎昌氏等에 南京出馬를要求한 蔣介石氏는 廣西問題未解決을理由로 南京에歸來치안는다는것을 明言하고 行政院副院長 孔祥熙氏를 自己代理로서 日中交涉全權을 委任할터이故로 孔氏가 國民政府의代表資格으로 川越大使와 折衝케命하엿다고 述하야 自身이 南京에赴하야 當面의重大交涉折衝에 當할 決意와 誠意가업는것을 表明하엿다고말한다 (寫眞은 蔣介石氏)

北海事件 調査第一報

【東京電話同盟】北海現地調査에 關한 根本書記生으로부터온 調査第一報는 二十六日外務省에到着하엿는데 그에依하면 犯人及背後關係等은 支那側의 隱蔽로 依然不明이다 그러나 慘殺事實은 明白한고로 外務當局은 右調査內容을基礎로 要求事項을決定, 根本交涉과併行하야 國民政府에 嚴重한交涉을 開始하기로 되엿다 報告內容은 如左하다

中野氏가 經營하는藥房은 公安局保管으로 商品 家具等은 全部封鎖하야 中國側에 保管을 依賴하엿다 日本側은 中野氏死體를 檢證한 安南人醫師 立會下에 埋沒中인死體를 發掘檢證하고잇는바 그때家族이 달려와서 中野氏死體인것이確認케되엿다 遺族十名은 全部無事한것이 判明되고 救濟하엿는데 十九路軍이 撤退하엿스므로 犯人及 그背後關係搜査는 困難이다 附近中國人은 中野氏와 交際關係가 稀

天皇陛下 室蘭港에御入港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午後五時二十五分 宮內省發表=天皇陛下께서는 今二十六日 午前七時十分 室蘭港御入港, 室蘭水上棧橋에 御上陸, 株式會社日本製鋼所室蘭工場行幸 同九時三十分 室蘭驛御發車 午後二時十九分 旭川驛御着車, 同二時三十七分行在所(旭川偕行社) 御安着하압시엇다 다음 同二時五十五分 同所御出門 御親閱場(旭川練兵場) 第七師團司令部、北海道旭川師範學校에行幸、同五時十分行在所에 還幸하시엇다

西班牙動亂畵報 ◇首都 마드리드府를 向하야 包圍隊形을 取하고 前進하고잇는 叛軍의 一隊이 과다라마嶺上에서 叛軍을 迎擊하는 政府支持의 義勇軍의 一團을 捕虜하는 光景

佛國金本位離脫로 金本位國은絶影

年始以來法貨의外國流出은 勿驚!百億에到達

【東京電話同盟】一九三一年六月 英國金本位離脫을 契機로하야 展開된 國際低落競爭傾向은 드듸여 一九三三年三月 黃金千國米國의 平價切下로 實質的으로 金本位離脫이되엿다 이사이에 佛國이 唯一한 金本位國으로 和蘭, 西瑞等의 푸라쓰블락을 引率하고 孤壘를 固守하고 爾來三年間 屢次佛國도 法貨의危機를 傳하여왓섯는데도 不拘하고 佛國國內의 特殊事情은 金本位離脫을 容易히 肯定할수업섯슴으로 擧國的으로 金本位維持에努力하여왓다 그러나 西班牙內亂의情勢 歐羅巴政局의 混亂 人民戰線內閣의 不統一 終齋等 投機者側의 暗躍이 盛行한關係로 法貨流出이 增大하야 去六月블룸內閣成立後의 流出高는 大約三十億 年始以來 流出高는 百億가까히 達하야, 最高保有高 八百億에 比較하면 大約四割의正貨를 喪失하엿다 特히 最近에이르러서는 投機者側의 活躍이가장 激甚하야 平價切下가 不可避한것으로보고 金流出이 더욱 激增하엿스므로 블룸首相도 平價切下의 不得已함에 이르럿다 佛國政府의 發表한바에 依하면 金法貨流通引下 兌換停止를 斷行한다고 하엿슴으로 이는 勿論 金本位離脫인데 現在米國이 名目만의 金本位維持를 하고잇지마는 實質的으로 金本位離脫國이 되엿스즉 佛國金本位離脫에依하야 世界는 드듸여 金本位國의 그림자도 볼수업게되엿다

佛紙一齊히 聯盟決議非難

【巴里二十五日發同盟】聯盟總會가 去二十三日에디오피아代表資格을 承認할決議를 採擇한結果 佛國政府對伊太利關係及 西歐羅巴安全保障 兩建設運動에 重大한暗影을 投하기에 이르럿는데 巴里各新聞紙는 右決議에 對하야 激烈한非難을 하엿다 다만 共産黨機關紙 유마니테紙만이 에디오피아에對하야 祝辭를述하고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의 功績을 稱讃하엿다 그러나 이以外 共産系新聞으로서도 大槪右決議는 平和機構에對하야 新障碍로 看做하고 此를非難하고잇다

허 [illegible] 一變으로 [illegible] 中國當局 [illegible]

이든英外相演說 佛蘭西에大衝動

英外交의劃期的轉向?

【주네브二十六日發同盟】이든英外相은 二十五日聯盟總會에서英政府의 新平和機構案에 對하야 大綱的說明을 加하엿다 右는一九三五年二月 英佛共同宣言及同年九月聯盟總會에서의 호어前外相演說에 依하야 宣明된 英國外交에 劃期的轉換을 加한것으로 佛國側에 相當한 衝動을與하고잇다 卽 이든英外相의 演說에 對한 佛國側의 見解는大體로 如左하다

一、一九三五年二月 英政府는東歐安全保障協定의 承認을暗示하는 同時에 佛蘇相互援助條約에 對하여서도 默默히 承認을 與하엿다 또 호어前外相도 英國은 如何한 侵略國에 對하여서도 곳 制裁를 加할 一般的義務를 遂行할用意가 잇다고 强調하엿다 그러나 이번 이든外相이 西歐諸國間에 局地的安全保障協約을 締結하기를 勸告하고 英國도 라인라드局地的安全保障協約參加의 用意가잇는것을 明示하엿스므로 「一般的義務」에 關하여는 새삼스러히 言及치안흔것은 歐羅巴問題에 深入을 避하려는 英國外交界의 劃期的轉機에 不外하다

一、이든外相의 演說은 그裏面에 包含된 相當한 意味가잇슬는지 모르나 中歐及東歐에서 獨逸의 汎獨逸主義運動이 非常한 勇氣를 갓게될것이다

一、또 英國外相이 聯盟規約과 베르사이유平和條約의 分離를 主張한것은 法理的意味는업스나 政治的으로 條約改訂要求에 劃期를 與할것이다 그러나以上英國에 對하야 이든外交의 基調는 多分히 侵略的意味를 가지것으로 英國은 獨逸의要求도 將來에 거이 無條件히 大讓할것을 豫期하고 英國의軍備가 充實하기까지 時期를기다리는 作戰이라는 觀測이有力하다

法貨平價切下

日本爲替엔無影響

【東京電話同盟】佛蘭西政府의 法貨平價切下에對하야 大藏省은 今春來豫期하엿든問題인데 日本對外爲替에는 何等影響을 受치안는것으로 觀測되고 오히려 이에追隨할 金貨國이 對和蘭爲替及 白耳義 爲替에 與하는影響을 重視하야 大藏省은 平價切下에伴한 英米佛三國協定에서 英國이 他二國에 끌려서 英米佛크로스가大幅變化가업는限 日本의現爲替政策에는 變化를 加할意向은 업슬것으로 右에對하야 富田財務官은 말하엿다 아직公電을接치안햇스나 平價가 現狀을維持할수업다는것은 豫期하고잇섯다 그러나 自己로서는 爲先金輸出禁止를行한후에 平價切下를 行할것으로 想像하고잇섯다 英米佛間의 通貨協定이 達成되고 世界通貨會議가 開催될는지는 目下判明치안는다

時局委員會設置決定

【漢口廿六日發同盟】漢口民團은 廿六日午後五時로부터 當地領事館, 陸海軍 商工會議所關係와 聯合會議를 開催하고 重要協議를 行한結果 急迫한時局에 對應하기 爲하야 四·三兩件과 同樣 時局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領事館과 緊密한 連絡下에 非常對策에 萬全을期하기로하엿다

獨逸陸軍大演習

【바·도·나우하임廿六日發同盟】獨逸陸軍의 秋季大演習은 二十一日부터 西獨佛라인右岸地方에서 開始되엿는데 二十五日 靑軍은 赤軍正面을 擊破하고 五日西夜에亘한 大演習을 終了하엿다 今回演習은 空軍機械科兵團以下 各兵種總動員하야 大戰以來 未曾有의 大規模인것으로 實戰과가튼 想定下에 擧行되여 復興獨逸, 國軍의 威力을遺憾업시 發揮하엿다 히틀러總統은 國軍總師 資格으로 統監에 當하고 부롬베륵 國防相 폰·제크트將軍以下 將星 나치스領袖 外國武官이 觀戰하엿다

政府米賣却成績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昭和十一年九月農林省告示第三百二十一號로부터 實施되든賣替을 爲하야 政府所有米 賣却(五十萬石)成績 如左하다

東京	四八、一二五三石二斗
大阪	八、三四二
濱田	九、〇三六
門司	四六一、二
名古屋	二七、一〇二石
神戶	五、八五二
熊本	五、〇五八、四
合計	一〇四、一〇四、八

對中問題에關한 三省會議

【東京電話同盟】外務省은 二十六日午後一時半부터 對中問題에 對하야 外務, 陸, 海軍三省會議를 開하고 外務省으로부터 桑島東亞局長, 陸軍省으로부터 磯谷軍務局長, 海軍省으로부터 豊田軍務局長 其他關係官이 出席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重永參謀 重要指示接受

【漢口廿六日發同盟】第十一戰隊參謀 重永主計中佐는 廿五日午後二時 漢口로부터 上海에急行 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과會見 長江流域方面狀況을 報告하고 그와함께 同方面 今後의警備方針에對하야 重要指示를 밧기로되엿다

西班牙大統領 避難要請? 亞國巡洋艦에

【부에노스·아이레스二十五日發同盟】叛軍의進擊을 압서西班牙國都마드리드市는 漸次混亂狀態에 陷하는貌樣인데 亞國政府當局은 「아자니아大統領外西班牙內閣의閣僚數名도 目下베아르카데港에 碇泊하고잇는亞國巡洋艦에 避難을 希望한다는報道가왓다」고言明하엿다 (寫眞은 아자니아大統領)

朝滿依存의深化 各方面에具體化?

期待되는懸案의解決

南總督이 就任最初各道知事會議에서 施政方針新要綱으로서 闡明한 朝鮮滿洲關係의 深化擴大는 今後半島統治의 重要使命으로서 地理的 經濟的 文化的 諸條件에서 對滿諸事業을 能動的으로 遂行함에 邁進할것으로 觀察된다 從來鮮滿間諸懸案은每事에 相違가 生하야 容易히解決을 보지못하는 遺憾이잇섯는데 鮮滿拓殖會社 創立을 爲始하야 移民問題가 圓滿裡에 具體化를 보앗스므로 이를 契機로하야 兩者間諸懸案解決은 매우 圓滑히 促進될것으로 期待되며 目下懸案으로되여잇는 在滿朝鮮人指導統制問題를 비롯하야

一、國境河川架橋協定
一、鴨綠江水路開發
一、同水力發電調査及發電計畫
一、稅關檢査

等 重要問題 交通 通信上의朝鮮 滿洲間 諸懸案이 從來의間隙을 一掃하야 眞實로 五族協和 大同에 就케할 滿洲建國目的의達成에 積極的協力을 與코자한다 그리고 爲先 朝鮮滿洲相互間의 眞正한 現狀을 認識하고 上層部의 意思疏通을 圖謀하야 知事會議에는 滿洲國要路人의 參列을 求하야 큰效果를 擧하는 一方 總督府側에서도 滿洲國現狀을 認識하기로하고 山田遞信局長은 來二十八日 渡滿 大竹內務局長은 二十九日發 關東廳施政記念式에 臨한後 滿洲를 視察할터이고 總督府 相川外事課長은 來月初 渡滿 北中及、滿洲國을 다시 視察할터인데 이에 繼續하야 總督府 上層部는 事務에 支障이업는限 機會를보아 各各 滿洲視察을 시킬方針인데 如斯한 朝鮮滿洲依存深化는 더욱 各方面에 具體化될것이라고 期待되고잇다

米陸軍長官後任任命

【華盛頓廿五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다인氏逝去에伴한 後任으로서 現次官의잇드링氏를 陸軍長官으로 任命하엿다

에國皇帝倫敦行

【주네브廿五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二十五日午前十時半 巴里出發 列車로 倫敦假寓에 向하야 歸途에올랏섯다

에디오피아軍 首都南方을占領

伊太利軍二千死傷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 에디오피아公使館으로부터 外務省에 드러온 報道에依하면 에디오피아軍隊는 首都 아디스아베바奪還을 策하야 首都南方四十二粁에잇는 미쇼로市를 占領하엿다 에디오피아軍은 데·자스마크,가브라마리아·데·뷰칼, 마리아諸將軍을 指揮官으로하야 去十六、七、八의三日間에亘하야 에디오피아暦正月을 記念하야 戰鬪되여 進擊을開始하고 伊太利軍守備隊와 猛烈한戰鬪를 開始하엿는데 伊太利軍은 毒瓦斯爆彈等으로應戰하야 死傷者에디오피아軍千五百名 伊太利軍 約二千名의 多數를算하엿다 戰鬪에意氣를노핀 에디오피아軍은 陣地를 擊破하야 드디여 고라市를 占領하고 또 南方으로다 方面에서도 小衝突이 잇서는데 伊太利政府는 近近八萬의 北方獨立守備隊로 首都防衛를 爲하야 南下시키기로 決定하엿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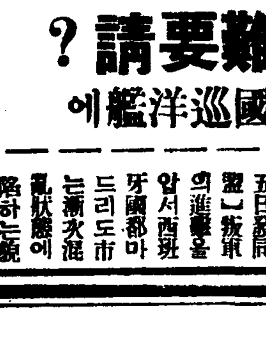
早稻田大學 校外生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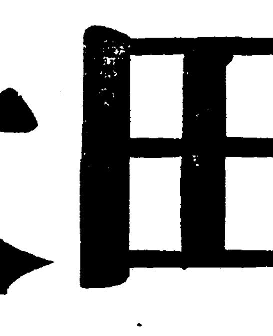
秋季 新學年

일하면서 배우라

秋季新學年 申込의受付를開始합

小學校를卒業할뿐으로光輝잇는本大學의校外生이되는이絶好의機會를일치마라





左의講義錄의讀者는모다本大學의校外生으로서待遇함

小學卒業의讀書力만잇스면누구나理解할수잇게써잇다

詳細는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中等學校程度

講義	期間	月謝
中學講義	前期一ケ年 後期一ケ年	各一圓
商業講義	一ケ年	一圓
高等女學講義	一ケ年	一圓
電氣工學(豫科講義)	一ケ年	一圓

專門學校程度

講義	期間	月謝
政治經濟講義	一ケ年	一圓二十錢
法律講義	一ケ年	一圓二十錢
文學講義	一ケ年	一圓二十錢
建築講義	一ケ年	一圓二十錢
電氣工學講義	一ケ年	一圓二十錢

內容見本

見本叢書에반드시 希望하시는 講義錄을分明히쓰시고 申込할것

申込所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一 四五

勞賃撒布에依하야 百萬水害民救濟

明春麥嶺까지生活保障이難關

恒久對策도依然杳然

십일만이천여호에 근백만명이나되는 전후량차의 풍수해의리재민구제에 대하여서는 그간편계각도에서 책임지출과 일반의동정금품으로 직접구제를한외에총독부에서도 직접구제에 주력하야 약이백만원정도의 긴급구제비를지출키로한외에 항구구제에대하여서는 각도의 조사보고를기초로 총독부사회과에서 립안키로하야 저간 각도의 조사보고를 기초로 작성하였든 구제비로 로임산포(勞賃撒布)의 한공사와 기타 복구를 한하면 이천수백만원을 재무당국에 제출하야 추가예산(追加豫算)으로 제출케 되였섯는데 그간재무국의 사정의결과는 만히삭감을 당한모양으로 사회과에서는 당초의 구제방침을 일부변경하기에 이룬모양이다 그런데 사회과의 방침으로 그중십한것은 명년 유월 보리가을까지에 생활을 지탕해나갈만한 방도를 채려주려는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삼개월 혹은 일개월간식 생활비가 지출되도록 하려는것인데구제하지 안흐면안될리재민의 수효가 감소되지 안는한 구제를 아니할수 업는형편에 잇는것을 지금 구제비의요구액이만히 삭감된데서는 이겨울과봄에 나가서 더욱 생활이 곤난하여질 리재민을 위해서는 크게 념려되는 문제이다

秋冷은기퍼가나 白熱하는救濟熱

同情金品續續逕至

추위를 압두고 하로바삐 수해리재민을 구원해내자는 소리는 추랭(秋冷)이 차츰 숨여듬에따라 더욱 곳칠줄을 모르고이땅의 도시와 촌락을 막론하고 멀리 현해탄을 건느고 또는 북쪽국경을 넘어서까지 그곳에잇는 동포들의 뜨거운 의연금이 여전히 본사로 밀려오고잇는데 이십륙일에 본사에긔탁된 그고마운 의연금은 아래와갓다

▲十四圓七十七錢也 滿洲國間島龍井村 侍天敎宗務部

▲十圓也 大阪市東淀川區本庄東通四丁目 小川兄弟硝子工場內 修養親睦會

▲一圓也 東京市江戶川區小松川三丁目五五 苦學生 禹永煥

▲二十二圓九錢也 門司市在留朝鮮人一同

▲二十一圓九十五錢也 大阪市東淀川區三國町森田洋硏合名會社 職工李公玉等一同

▲十一圓十錢也 京都府久世郡寺田御字新池久世綴喜郡在留朝鮮人一心同進會取扱

▲三圓十錢也及衣類十點 平海普五名

▲十六圓二十四錢也 北靑郡陽化公立普通學校職員兒童一同

▲十圓也 天道敎楊州郡道人一同

▲二圓五十錢也 楊州郡鹿海面中稀里東明學院敎員兒童一同

▲一圓二十五錢 國勢調査課 李鍾運等五名

▲五圓及衣類二百四點 市內薔町 朝鮮예수敎友一同

▲三圓七十五錢也 市內付岩町元彰學校兒童一同

衣類와金品寄托

【會寧】 금번남선각지에 풍수해로 리재백만동포의 참상은 누구나 남의일로 보지못할현상이기때문에 동정의 금품이 련속답지되는것은 본보에 매일보도되는바어니와 지난 이십오일에도 회녕천도교종리원(天道敎宗理院)에서 모집된 금십이원십오전과 의복일백일점을 리인걸(李仁杰)씨가 본보회녕지국을 차저와서 하로바삐 수해지 동포에게 전달하여달라고 의뢰하엿다고한다

無處不觸의朝窒 油肥工業에도着手

石鹼製造에一層合理化를劃策

【淸津】 오유(鰮油)로부터 비누(石鹼)을 제조하야 우수한 성적을나타내인 조질왕국(朝窒王國)에서는 상인에게서 오유를 구입하는 종래의 수속을 철폐하고 오유제조까지 일체를 경영하게 되리라하야 청진지방의 유지공업(油脂工業)계에서는 적지안흔 충동을 밧고잇다한다

待機中의霜葉

降雨中에展開된延·崇蹴球戰(昨日京城球場에서)

不振의延專連敗 勝利는崇專軍에

降雨中진흙투성이에서血戰

延、崇定期蹴球終幕

본사후원아래열린 연희전문(延禧專門)과 숭실전문(崇實專門)의 제일회정기축구전 제이일은 전일 숭전군 선승의 뒤를 니어 이십륙일 오후네시사십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리엇다 이날 폭우(暴雨)로인하야 『그라운드』는 진흙투성이로되어 마치수중(水中)축구전을 연하는듯하야 극히불량한 『컨디슌』을 무릅쓰고 량군은 악전고투끄테 드디여 오대이의스코어로 통분을 느끼는 연전군련패하니 원래의숭전군이 기념할제일회 정기전의 패권을 획득하엿다 이리하야 본사기증의 우승순(優勝楯)은 연전교장 『언더우드』씨의 손을거처 숭전군에게 수여되니 때는 오후여섯시반 련이일간 열전을 거듭한 정기전의 막은 원만도성황리에 닷치엇다

崇專 5 延專 2 (前2…2、後3…0)

崇專對延專戰은 同午後四時四十三分부터 李仁奎(主審)、卞洪鍋、金龍圭(線審)三氏審判아래 崇專킥어프로 開戰되바 前日의慘敗를 雪辱코저 延專의攻勢猛烈하야엿스나 원체 球場이 泥濘化하야 兩軍의連絡조차 如意치못함으로 苦戰을 거듭할뿐이드니 開戰六分에 延專RW李奉綺君의 대시하야 奪取한 첫點을너허 자못氣勢를 올리드니 三十二分에 延專篇前에서 亂戰타가 崇專RW洪練利君의 蹴으로 一點을挽回하야 一對一同點되자 戰況은 더욱 白熱化하야 雨余맛고 觀戰하는 熱心한 팬들로하여금 熱狂케하드니 三十二分에 崇專RW洪練利君의 『롱숫』보기조케골인되여 二對一로 崇專리―드하니 이에延專軍俊烈히 追擊하야 四十四分에 隅蹴에利하야 LI金寅鍋君의 『헤딩』으로 得點하니 二對二同點되채타임업되다 後半戰에 드러가서도 못칠줄모르는비로인하야 『컨디슌』은더욱不良한가운데 兩軍奮戰力鬪하드니 十分과 十五分에 崇專RI沈豪烈君의 活躍으로 連다라 得點하야 四對二로大勢는 崇專에게 기우러지니 延專FW線의 不斷한 進擊도効업시 五分을남기고 崇專CF車淳玉君의 蹴으로또一點을加하야 五對二의 스코어로 延專不運의 連敗를당하엿다 (계이九十分間)

(崇專) 金宮守 金永根 車淳玉 沈豪烈 洪練利 毛成春 盧建彬 金應聖 李昌植 金景奎 趙鏞海

GRLRCLRRCLT KFFHHHWIFIW

(延專) 鄭甲錫 金南錫 李惠德 金成玗 丁奉錦 李海敎 李松鶴 李敬一 李容南 張鴻南 李容馥

計 前 後 (得點·蹴門·自由蹴) [illegible]

崇專、東興歡迎會 昨夜兩處에서開催

崇專蹴球團의 歡迎會는 昨卄六日午後八時부터 延專主催로京城驛食堂에서 열리엇고 間島東興中學蹴球團歡迎會는 同日午後六時半부터 太西館에서 朝鮮蹴球協會主催로열리어 和氣靄靄한가운데 散會하엿다한다

檢擧後二年八個月 五十一名大量公判

全南社會運動者協議會事件

記錄만二萬五千페지

【木浦支局特電】전남사회운동자협의회사건(全南社會運動者協議會事件)은 소화구년 검거이래만 이년팔개월만에 오는이십구일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에서 제일회공판이열리기로되엿다 피고오십칠명가운대서 다섯사람은 예심면소(豫審免訴)로 피고한명은 죽고 남어지 오십일명이 출정하기로되엿다 이사건의긔록은 이만오천페이지나 되는방대한것이다

看護婦宿舍에 赤痢患者發生

작년 여름부터가을 까지수개월간이나 한참 장질부사(腸窒扶斯)가 창궐한시내대학병원(大學病院)간호부 긔숙사에 이번에는 적리병(赤痢病)환자가 발생되엿는바즉 그긔숙사간호부 토정수자(土井壽子)(二七)는 지난이십사일 발병하야 이십륙일 소전(小田)박사의 진찰을바든결과 적리(赤痢)로진정되여 곳전염병실로 옴기엇다한다

廉喜慶차저주

시내 통의정(通義町)이십사번지 렴희경(廉喜慶)(二四)이란 녀아는 양복우에 분홍저고리를 입고 단발한재로 가튼번지의 김경수(金京洙)(二六)란 녀아와 이십륙일 아츰여덟시에 그집부근으로 놀러나갓다가 이내행방을 알수업게되엿다 한다 그런데 전긔렴희경의 특증은두눈이 사팔드기처럼 몰어드는버릇이잇다 하며 김경수는분홍룡으로맨든 의복을입엇다한다

新聞小說界에 明星出現!

方仁根氏

金奎澤氏

來二十九日부터 朝刊三面에連載

때는 맑은가을입니다、벌레소리를 드르면서 인생을 기피생각하고 등잔불을 도두어서 조혼 글을 읽고십지안습니까? 만천하우리독자들의이러한 심경을 짐작한 본사에서는 오는 이십구일 조간삼면에 신문소설의 권위인 춘해 방인근(春海方仁根)씨의작인 『쌍홍무(雙虹舞)』를 실기로 하엿습니다 씨는 다시 소개할것도업시 우리문단에서도 독특한 작풍으로 외연(巍然)한지위를 쌓어올리신문인바 이번의 이대작을 내여노키우해서 삼사년래로 청벽가튼 칠묵을 직히다가 마친내 그연대(椽大)의 붓은 움직이게되엿스니 작자의 이러한 각고정려의 경성은 반드시 독자여러분의 감격의 눈물로 보답되리라고밋습니다 더구나 삽화는 나날이 그 화명이 노파가는 웅초 김규택(熊超金奎澤)씨가 심혈을 기우려 맛더보게되엿스니 이 글과 이 그림이 합친다면 그야말로 『雙虹舞』란 제목가티 두줄기 무지개가 함께 어우러저 지상에 춤출것을 기뿌게 기다립시다。

長篇小說 雙虹舞

春海 方仁根 作

熊超 金奎澤 畵

作者의말— 제목을 쌍홍무(雙虹舞)라고하엿는데 내용을 미리 말하면 재미업고 그러타고 무슨 말이나 하라고는 하고 실로 난처합니다。쌍홍무라니 해석하기에 딸렷지마는 소설을 끗까지 읽어야 그뜻을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이소설은 순전한 인정소설(人情小說)로 두쌍남녀의 애정파도(愛情波濤)를 그린것입니다。원래가 인생이란 정(情)뭉어리매 정의 지배를 밧고 그정으로 인해서 가진 슬픔과 기쁨이 생기는것이라고 할수잇습니다。그정의 생에서 빼처나오는 황홀한 쌍무지개를 그리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을 처음 절반은 농촌、후반은 도회에서 활약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곳 우리의한때 친구로 생각하여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 일생에 인연기픈 정이 매저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두쌍의 고혼 무지개가 춤을춥니다。융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춤을 춥니다。그 찬란한 무대(舞臺)우에서 그들이 어떠케 연극을 할지 처음부터 끗마치지 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실상은 춤보다 노래가 만습니다。……

이러다가는 내용이 다 루설되기 쉬웁고로 그만하고— 때는 맑은가울、글쓰기와 글읽기가 다시업시 조혼시절임을 못내 기뻐하며 이붓을 멈춥니다。

— 仲秋 楊州天摩山에서 —

돈훔치고逃亡

함경북도 성진읍욱정(城津邑旭町) 리화선(李化善)의 장남종준(鍾俊)(二二)이가 시내에잇는고등음악학원(高等音樂學院)에 입학하야 공부한다고 집에잇던돈 일백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렷스니 차저달라고 이십륙일시내종로서로 전보의뢰가 잇섯다

行旅女屍發見

이십륙일 오후여덟시 추위를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시내서린정(瑞麟町)일백이십륙번지 압 거리우헤서 나히 오십세가량된 녀자 행려병자가 쓸어저서 의식을일코 잇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 발견하고 경성부청으로 넘기엇다

牛車夫重傷

이십륙일 오후다섯시반쯤에경기도양주군장흥면삼하리(楊州郡長興面三下里)사는 우차부 리순성(李順成)(三五)은 우차를 끄을고 무학재를 넘어가다가 시내홍제정(弘濟町) 일백이번지압 큰길에 시내대화정(大和町)조선장의사(葬儀社) 자동차 운전수 류금록(劉金錄)군이 운전해 가든 자동차에 바치여서 왼쪽팔이 부러젓는데 한달동안 치료바들 중상이라한다 그는 우차를 피하기 위하야 올흔편으로 나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자동차에 바치게된것이라한다

●朝鮮唯一의藥

KODERA 醫學博士推奬

萬病藥水

與論證明 藥効顯著

補材藥水
解毒 身體强壯、神經衰弱、半身不隨、關節痛 其他强壯劑
EBISU FUKUHOO
에비수疥瘡膏 金五十錢
에비수補材膏 金五十錢
에비수金鷄納 金二圓
專賣病良藥 비수사로ー루
淋病藥 超越淋藥 ¥5.00
痔病良藥 痔疾劑 五〇錢
▲寄品注文할時는(바다시) 釜山府本町五丁目 에비수藥院 EBISU 振替釜山二三二四番
▲僞造藥에注意! 丸藥、錠劑를만든약수라하고販賣하는者가잇소 水藥、만든약수가 이라고써서、편지하여주시요

農林省御推薦機
ヒト輕油發動機
燃料節約·取扱簡單
出馬力强大·堅牢無比
シリンダー交換式
二馬力부터十二馬力까지
鮮滿配給元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一二六九番
(在庫豊富 型錄進呈)

副業또는本業에 紙袋의製造
[illegible]
大阪市西區本田通一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番 照會次第型錄無代進呈

養毛 美髮의 毛髮에 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立秋
銘酒 天淸し
誠鶴
の一杯、氣朗か
ホントに美味い[illegible]
灘兒酒造場

月百圓의收入
軍手製造家募集
말할것도업시軍手는季節업는實用品으로販路는世界的으로宏大하고前途洋洋한것으로製品은언제나잘팔리는데只今가지쓰기힘든能率업는舊式製造機로서는製品도高價로收入도적어서 [illegible] 그래서 我社는굉장히 能率이놉고또使用簡便한 自動軍手製造機의專賣特許의大發明을完成하고 이것을우리專屬製造者에게提供하야 [illegible]
申込所 京城府鍾路六丁目 [illegible]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勤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略歷記入、申込次第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合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パパイン酵素應用·藥用クレーム
定價一號 一圓三十錢 二號强度 一圓八十錢
ヤパンモア
여드름…부름 죽은깨 벗겨름
여름의美容上不調生이原因이되여가을으로은 [illegible]
見本進呈 (二錢切手を送り乞)
專賣特許
東京市神田松住町十二 株式會社 杉田商店

京城版

殉敎福者 記念祭盛況

이십륙일에 시내명동 천주교당(天主敎堂)에서 조선순교복자기념제(朝鮮殉敎福者記念祭)를 원주교(元主敎)사식(司式) 아래에 성대하게 행하야 무사히 폐회하엿다 그리고 그날저녁에서부터 그교당에서 원주교의 귀념설교가잇섯다고한다

日曜講話

◇中央基督敎靑年會 午後三時 基督敎의本質 金洙喆 氏
◇貞洞敎會 午前十一時 試鍊 李東敏 氏
午後七時半 信者의準備 洪淳浩 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人生의瞬間과 一念의瞬間 金永燮 氏
午後七時半 救援의宗敎 金昌俊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人生의오묘라 金鍾宇 氏
午前七時半 少年들의앞길 金明性 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우리의要求하는人物 姜致奉 氏
午後七時半 福音 朴淵瑞 氏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 聖潔의生活 金英珠 氏
午後八時 金保麟 氏
◇復活社講堂 午後二時半 當然한의生徒 金敎臣 氏
◇鐘路?? 午前十一時 泥中의蓮華 朴鶴俊 氏

明年度道路鋪裝은 準幹線道路目標

幹線道路는今年度에完了 所要經費二十萬圓

대경성부가 실현됨에 따라도로도 확대하고 기타시가도 점점 정리하여가게되여 외형으로나 실제로나 대경성의 면목을 나타내고저 경성부에서는 착착 제반 공사를 진행중이며 진척 두려 공사중이든 부내간선도로(幹線道路)의포장공사(鋪裝工事)도 명년도에는 거의 완성되엿스므로 명년도에는 다시 이십만원예산으로써 준(準)간선도로의 포장을 진행하기로되여 방금 그준비를 진행하고잇다한다

京城交通安全協會 發起人會開催

實行委員十二名選擧

긔보=경성교통안전협회(京城交通安全協會)의 발긔인회는 이십륙일 오후 한시에 시내광화문통 경찰참고관(警察參考館)상층에서 경기도경찰부보안과원지내 각운수영업관계자 각경찰서장등 삼십여명의 참집으로 개회하야 하촌(下村)경찰부장의사회알에조(趙)보안과장의 취지(趣旨)및회측(會則)설명과 사업계획보고가 잇슨뒤 실행위원열두명을 선거하야 회원을 모집하기로결정하고 오후두시에 폐회하엿다 실행위원회는 오는이십구일오후한시에 경긔도청에서 열기로되엿스며 선정된 실행위원의 씨명은다음과 갓다

▲京城電氣會社 電車課長 小松?英 ▲朝鮮運送會社長 中野金次郞 ▲京城自動車協會長 土井一城 ▲同副會長 白石?? ▲同副會長 吉東相 ▲京城自動車運轉者協會長 森六治 ▲京城荷主協會長 戶島祐次郞 ▲京纖道自動車協會理事 梅田新太郞 ▲同貨切部長 野村謙三 ▲同乘合部長 ▲金成根 ▲同貨物部長 山下佐太郞 ▲同貨切貨物部長 堀司馬太郞

京城都計研究會員等 永登浦를實地踏査

都市計畫成案을樹立하고 實施促進을期코저

【永登浦】 경성부의 행정구역대확장에반하야 조선시가지 계획령(朝鮮市街地計畫令)의 창설적요에 의한 대경성 도시계획은 이래관계당국과 민간유력자등의협력으로 착착 진행되여 이미 그 성안을 보게되여 불원실시에 착수를 할터인데 이계획에의한 도로(道路)보건위생(衛生)기타제반시설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야 감저(甘藷)경성부윤을 비롯하야 경성도시계획연구회(京城都市計畫硏究會)의 유하광풍(有賀光豊)하전직치(賀田直治)기타부회의원(府會議員)상공회의원(商工會議員)민간유력자등 이백오십여명은 오는 이십칠일 오전구시 시내본동정(本洞町)수도사무소(水道事務所)아페집합하야가지고 본동(本洞)로량진(鷺梁津)상도(上道)번대방(番大方)신길(新吉)등각정의 지세 기타제반시설을시찰하고 정오에 영등포정(永登浦町)에와서 기린、삿보로량맥주회사에서 주식을마치고 종방경성공장(鍾紡京城工場)조선피혁회사(朝鮮皮革會社)등을 시찰한후 영등포(永登浦)일대의 수(防水)배수(排水)하수구(下水溝)등제시설급 간선도로 실시의 제반조사를 할예정이라는데 원래 영등포는 생산도시로 중요지위를 점령한곳으로 도시계획상 모든시설은 다른곳보다급설할필요를 늣기는바로 동연구회의 동지시찰은 상당히 중요성을 씌이고 잇다고한다

朝鮮서처음實施되는 흉터나지안는種痘法

금년봄에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의학부 시진(矢進)박사의 발명으로 세계의학계를 놀라게 한 흉터가나지아니하는종두법(種痘法)은 그간시험기를 버서나 정자신실험회를 보게되엿슨바 이번에 조선서는 처음으로 시내인사동(仁寺洞)박용준병원에서 이약을 수입하야 흉터안내는 종두를 실행한다고한다

秋夕牛市開場!

千二百餘頭一時買賣

음력추석(秋夕)을 앞두고 동대문밧 가축시장(家畜市場)에서는 이십오일에 소(牛)저자를보엿는데 장에드려온소는 일천오백삼십머리로 매매되것은 일천이백머리(총가격십사만륙천사백원)엿다 딸할가량이 매매되세 이백이십원이며 최하는오십원으로 매매되엿다 그러고 도야지는 장에 드려온것이 삼백머리엿는데 매매되것은 이백사십팔두(총가격칠천삼백칠십이원)로 역시 딸할가량이 매매되엿다 한머리에평균 이십칠원이며 최고는 사십오원 최하는십원이엿다 추첨으로 경품에당첨된 사람은 소입등에는 경기도양주군와부면치중리(楊州郡瓦阜面治中里)소장사송희섭(宋熙燮)씨와 경기도부천군계양면독실리(富川郡桂陽面獨實里)소장사 권이규(權貞圭)씨엿다 도야지 일등은 시내신당정(新堂町)일백칠번지 도야지장사 최룡근(崔龍根)씨라 한다

實業庭球第十日 降雨로中止 十月三日로延期

京城實業庭球리-그第十日은二十六日 午後二時부터 府營코-트에서는 鐵道對殖銀 專賣對總督府戰과 朝銀코-트에서 商銀對朝銀戰을 擧行할豫定이든바 이날의 降雨로因하야 來十月三日 午後一時부터 同場所에서 續行하기로되엿다한다

慶立野球無勝負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리-그 立敎對慶應第一回戰은 二十六日正午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敎先攻으로 開始한바 九回까지 得點업시 零對零의 無勝負로 마치엇다 閉戰二時九分 ◇投捕 (慶)中田-藤井(立敎)田-別井

第十八回A마라손 李在聲君優勝 四一分三〇秒로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十八回A마라손大會는 二十五日午後三時七分 光化門通네거리를 出發 約八哩코-스에서 열린바 처음에는 從來의코-스를 取하랴하엿스나 不得已 變更하야 京中前을 지나 義州通을 거처 京城驛을 通過하야 新龍山第一人道橋前을 돌아 오는 約八哩코-스에서 열린바 이날은 出發直前에 降雨가잇슴에도不拘하고 멀리 廣州에서까지 參加한選手도잇서 白熱戰끄테 廣州李在聲君이 四十一分三十秒의 良好한戰績으로優勝하엿스며 以下順位는 다음과갓다 (寫眞은 左로부터 優勝한 李在聲 金國培 諸泰熙諸選手)

◇往復總타임
1、李在聲(廣州)四一分三〇秒
2、金國培(京城)四二分F
3、諸泰熙(靑學)四二分四〇秒
4、鄭壽吉(白光)四三分五秒
5、李民相(職學)四三分一七秒
6、安鳳珍(徽新)四三分五五秒
7、高炳基(往十里)四三分五六秒
8、兪忠鎭(壬戌)四四分二七秒
9、高學善(京城)四五分六秒
10、李景相(壬戌)四五分一〇秒

◇前半타임
1、李在聲(廣州)二一分二秒
2、金國培(京城)二一分二四秒
3、李民相(職業)二一分四一秒
4、諸泰熙(靑學)二一分五〇秒
5、鄭壽吉(白光)二二分F
6、高炳基(往十里)二二分三五秒
7、金淸植(西江)二二分四〇秒
8、張壽榮(白馬)二二分四三秒
9、安鳳珍(徽新)二二分四五秒
10、高學善(高城)二四分F

誠金二千五百圓 救濟品은五千點

開城人士들의 눈물로된結晶 順次災地로輸送

【開城】금년의 풍수해는 개벽이후 처음보는 하늘이던저준재앙이요 우리조선민족의 최대비극이라면 이들을동정하는 마음은 인간참당한재지로 흐르는성심은 아마 이번 개성일반부민이 최고조에 달햇슬것이다 『수해구제회』에서 모집된의 연금만도 일천이백 칠십이원칠십칠전이고 시내각교회에서 모집한의복 삼천삼백칠십점을 필두로 각학교、경희、기생조합과 본보개성지국등을 합하면실로 총집계가 현금으론 이천오백원을돌파할것이며 의복으론 무려오천여점을 초과할것이다 『수재구제회』에선 산가티싸힌 구제품을 세구루마에 나노하 재지로 발송하얏는데 아즉도 한편에선 구제의열은 식지안코잇는 형편이다(사진은 開城水害救濟會會員一同과山積한救濟品發送光景)

史蹟燦然한開城 保勝機關을組織

五萬圓財團結成方針

【開城】우리조상이남겨논 유적과 그녀물을 자손에게 감명(感銘)시켜준다함은 실로뜻기픈일이다 개성은 오백년왕도이엿든것 만큼 허다한 고적유물이산재해잇지만 황페한그대로 버려둔것을 항상유감으로생각한 개성부에서는 이를수리보호하는일방 사를 자랑하기위하야 보승회(保勝會)를조직으로 지난삼일부청회의실에 일반유지백여명을초청해놋코 오만원의재단법인의 보승기관을 조직하기로 결의된바 회장은 권중식(權重植)씨로 정하엿다한다

손에는과자를든채 불상한棄兒

生活難으로夜半에遺棄

【仁川】지난이십오일 오후팔시반경에 인천부금곡리(仁川府金谷里)사십팔번지 박정구(朴挺九)씨집문전에 생후오개월밧게되여보히지안는 남아를 강보에싸서석빵한조각을 손에 듣니채버리엿다 이를동주인이 발견한후 자세히 살펴본결과 수일전에과자를 팔러왓든녀자가 업엇든아해와 흡사하야 주인은아해를안혼 전기녀자를 각방으로차젓스나 맛날길이·전연업서 당분그가정에서 보호키로 하엿다는데 원인은 생활난으로 기아한듯하다한다

募集一個月 五百圓을突破

仁川人士의熱誠

【仁川】남조선재지동포를위하야 모집한 구제금품은 실로문자그대로 쇄도하야 남녀로유를불문하고 피차에압흘다토아가며 진히사한 금품이 의류만도상천여점을 돌파하얏스며 현금은인천부산수정(仁川府山手町)성공회(聖公會)의 이십이원오십전을합하야 루계사백팔십이원칠십사전에달하다고한다

自殺코저跳降!

【仁川】인천의명소 오십척홍여문에서 뛰여나려자살 하랴든청년=본적을 충남서산(忠南瑞山)에두고 얼마전에 직업을 엇고자인천으로왓스나 동경하고잇든도회의인심과 생활은 오죽그로하야금 고통만줄뿐임으라 각방으로 생각하다못하여서 지난이십륙일오전두시경 놉히오십척이나되는 인천의 명소 산근정(山根町)『홍예문』(虹門)에서 뛰여나려 자살코자 하엿스나 죽엄도 뜻대로못하고 로변에 인사불성이되야 혼도하고잇는것을 소방수가발견하야 방금 비전원(飛田院)에서시료중이다 겨우구명만은될듯하나 불구자는 면치못하리라고한다

運動競技

올림픽代表本隊 上海上陸禁止

【鹿島丸二十五日發同盟】日本올림픽本隊平沼團長以下百十一名은 二十五日午前九時香港에到着 各各 當局의案內로 香港을見學하고 午後一時日本人俱樂部의 歡迎會에 臨하야 同六時二十八分 上海로 向하야 出帆하엿는데 上海에는上陸을禁止하게되엿다한다

學生對抗陸上延期

【東京電話同盟】올림픽陸上軍이 搭乘한汽船코레욧소丸의 故障으로因하야 來十月一日에 歸國豫定이든 陸上代表軍一行은 約一週間遲滯케되엿슴으로 十月三、四兩日間에擧行할 日本學生對抗陸上競技大會에는 올림픽選手의出場은 不可能하게되엿는데 歸國歡迎의意味로보아 올림픽選手의參加를要求할方針으로 日本學生陸上競技聯盟에서는 同競技會를一週間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

陸上二哩에 新記錄作成

【스톡호름廿四日發同盟】廿四日當地에서 擧行한 陸上競技會에서 芬蘭『헤켈트』選手는 二哩『레-스』에 八分五七秒四의 世界記錄을 作成하야 從來의『헬드라스』(米)選手가 保持한 八分五八秒四의 世界記錄을 突破하엿다

講武館進級者發表

朝鮮講武館에서는 二十五日午後八時半에 同館內에서 지난八月中에擧行한 柔道昇段及進級式 狀授與와 腰帶授與式及 進級式이잇섯는데 進級者는 다음과가티 三十一名이다 그러고同館支部인 載寧講武館進級者는 모다 二十九名이라고한다

◇講武館進級者 ▲二級乙 李佑鳳 吳福東 ▲二級甲 洪龍駿 李三龍 ▲趙明弼 ▲二級乙 柳光熙 金齊根 ▲三級乙 許永常 ▲四級甲 李圭大 金福敬 黃寬大 ▲四級乙 權宗根 李昌熙 沈仁燮 尹秉浩 ▲五級甲 金基漢 徐源 方昌顯 金慶福 ▲五級甲 姜今成 尹鎭華 李鍾億 ▲五級甲 金在雄 黃壽萬 ▲五級乙 張基漢 韓錫純 李相玉 ▲少年部五級乙 李石九 鄭東淳 李壽龍 (以上三十一名)

◇載寧講武館昇段、進級者 ▲二段 閔泰郁 ▲初段候補 宋在奉 ▲二級甲 孫昌榮 韓寶奎 朴泰模 ▲二級乙 全文鎬 ▲三級甲 玉鳳洙 金禹鼎 ▲三級乙 李圭泰 姜益淳 ▲五級甲 吳振玉 金亨九 ▲五級乙 李鋼柱 ▲六級甲 諸致雨 尹陽燮 ▲六級乙 崔道源 柳基培 ▲少年部 二級乙 朴能福 ▲三級乙 吳明鎬 李容瑞 ▲四級甲 玄泰奎 ▲四級乙 李世國 吳國煥 ▲五級甲 宋潤和 李夢開 崔瑞球 ▲六級甲 吳永楨 全仁聖 全東河 (以上二十九名)

體育데이 男女庭球 十月一日부터

京城府體育데이 軟式庭球大會는 十月一日과 四日의 兩日間 京城運動場코-트에서 열릴터인데 一般規定은다음과갓다 ▲十月一日=◇男子一般部(個人트나멘트)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A코-트使用 ◇男子中等校部(個人트나멘트) 各校三組以內 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B코-트使用 그리고 以上兩競技가當日終了치 못할때에는 十月三日(土曜日)午後三時부터 續行함 ▲十月四日=女子中等校部(對校리-그戰) 各校三組로서 一팀이됨 正選手以外에 二組以內의 補缺을 認定함 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AB兩코-트使用 試合方法은 三組對抗優退戰에 하야『리-그』戰을 行함 同率일때에는 朝鮮軟式庭球聯盟競技規則에 據하야決定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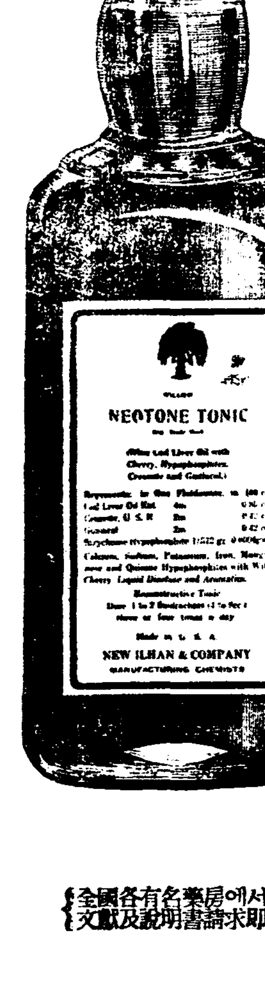
今日의運動

▲陸上=第三回男子中等校大會 午前十時 京城運動場
▲野球=奉天滿俱對京電 午後二時 京城球場
▲漕艇=第十二回朝鮮神宮體育會漕艇競技 午前九時 漢江人道橋下코-스
▲럭비=秋期리-그戰 臺正對京商俱 午後三時 龍山新設球場

新鮮優良―비타민豐富

森永ミルク

森永煉乳株式會社



海州肺病療養院에서도

버드나무票 네오톤 을使用한다!

Neotone

海州救世療院은 朝鮮에 唯一한理想的 肺結核療養院으로 創立以來十餘年에 許多한 患者를 治療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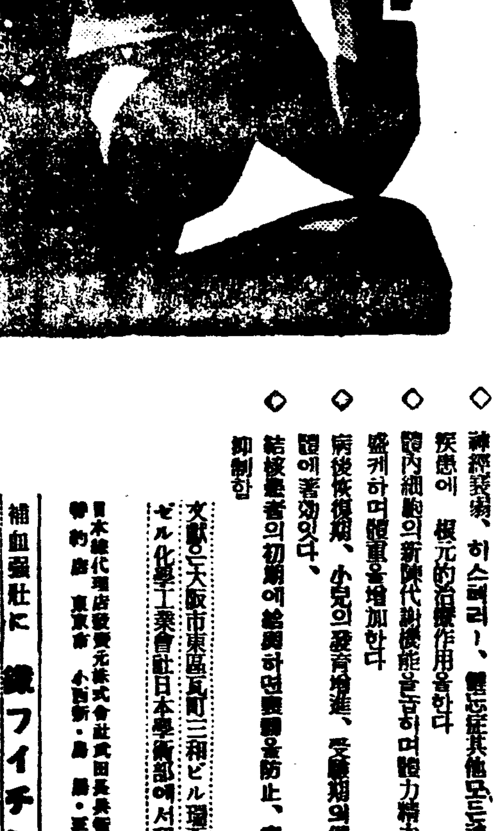
그러면 救世療養院에서는 어떠한 藥을使用하는가? 數多한良藥을使用하는中 弊行直輸入의 歐米各國에 高名한 治療劑를 多數選擇愛用하며 特히 補肺·神經强壯·食慾亢進의 目的으로버드나무票『네오톤』(NEOTONE)을 代表的으로 使用한다。此藥은 現代醫學原理에符合되는 高貴原料를配合하야 調製한名藥으로 葡萄酒와恰似한佳味藥인대 過去數十年 歐米各國에서 代表的補藥으로 使用하야 其名聲이滿天下에 普及된藥劑입니다。그러나 이와가튼 本劑의品質及効力優秀로因하야 近者數多한 模造品이簇出하엿사온즉 本劑를 愛用하실때에는 반드시 貴下가 信任하시는 病院이나 醫師에게 其眞否를 問議하시든지 또藥房에서는『버드나무票』네오톤의 包裝을 確實히 檢視하십시요。

【包裝】 350· CC 1900· CC 3000· CC 3785· CC

네오톤直輸入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九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及說明書請求即時送呈



PHYTIN

神經衰弱治療劑 フイチン (후이친)

植物發芽―生命―의힘을 生하는主要成分인 有機性燐化合物로써 神經을 强壯케하며 活力을給與하며더욱身體를 頑健케하야 活動의第一線에선健康의 要素를人體에 賦與하는良劑로世界的으로써 實用되고 잇다(錠劑、粉末)

◇神經衰弱、히스테리-、健忘症其他모든神經系疾患에 根元的治療作用을한다
◇體內細胞의新陳代謝機能을旺盛히하며 體力精力을旺盛케하며體重을增加한다
◇病後恢復期、小兒의發育增進、受驗期의體力增健에著効잇다、
◇結核患者의初期에 給與하면憂鬱을防止、病勢를抑制함

文獻은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學術部에서郵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市 小西新·島·鹽·五兵

補血强壯に 鐵フイチン

糖衣を加へ美味にせる 粒狀フイチン

11―24

効力本位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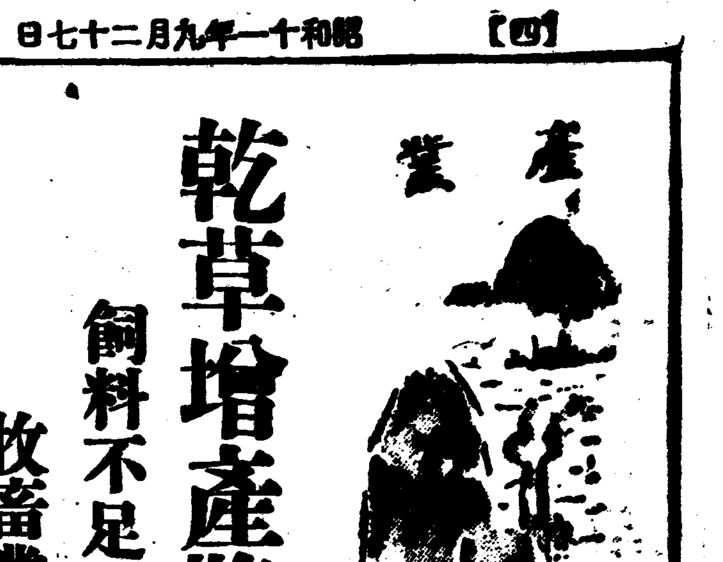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二三番
九月二十七日낫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 낫一時 밤七時半始映
◇유나이데트社超特作日本版 大名篇 紅はこべ 全八卷 監督……하롤드양크氏 主演……레스리하와-드氏 마알-오배른孃
◇유나이뎃트社超特作日本版 豪華版 雨 全十一卷 監督……루이스마일스톤氏 主演……죤클포-드孃 월러-휴스톤氏
大都映畫社超特作現代活劇 無茶苦茶喧嘩大將 ハヤブサヒデト氏監督主演
次週=가시며올나요夢物色嫁寶船

團成社
九月廿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獨우파超特作映畫 꾸스타브、우스키監督 안제라、자로카主演 問題의大雄篇 반다-크 深黑한中世紀에태여난細情奇蹟의少女의悲壯하고도아름다운그生涯
◇獨우파超特作映畫 푸랭크위스발監督 大空의驚異 新時代의流行兒기라가다의世界最初의雄篇、사랑과友情을그린새로운대로
◆운메로드라마!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鈴木澄子 尾上榮五郎 主演 悲哀鼠の道
百餘白中칸다、無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二三五
朝鮮劇界의權威로王者로君臨한우리靑春座는여러분의絶對的이신支持아래에破天荒의人氣도亘三朔이라는長期公演을始終이如一하게大盛況으로마치고이제暫時湖南地方에訪問巡廻의길을떠나게되엿습니다 湖南各地의人士께서는今番訪問에倍前의聲援을주시기바라나이다
新秋特別興行 九月二十四日낫부터 晝夜二回 特別料金 階上七十錢 五十錢 階下四十錢
朝鮮聲樂硏究會男女名唱總動員 金容承脚色 歌劇 春香傳 七幕十一場
朝鮮이가진唯一한歌劇春香傳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片桐敏郎 助演 北見禮子 琴糸路 主演 剣を踏む女
大都映畫社超特作現代劇 小澤得二氏監督作品!
藤原釜足 三益愛子 高尾光子 鈴木桂介 古川綠波 德山璉 主演 歌ふ彌次喜多
P·C·L·超大作全發聲喜劇 岡田敬·伏水修監督作品!

파社自慢의大名篇
永不滅의名畫 人氣의名콤비 演出 마레네데트리히 게리쿠파-氏 主演 지가베닌 ...
眞珠의頸飾
파社超特作 九月二十七日부터 特別封切 巨匠 ... 그보사-기氏監督



産業

乾草增産奬勵
飼料不足을解決하야
牧畜業의進展을圖謀

朝鮮은 그土地가 素質로 보아 有畜農業에 適應하야 現今畜産 養과 如함은 자못 高率을示하고잇는데 이를 擴充함에는 基礎條件으로 解決할 問題로 飼料問題가잇다 特히 越冬期의飼料不足이 頭痛거리로 이것이解決되지안허 畜牛나 養豚과 緬羊도 모다 一層의 進展을 바랄수업다 그런데 이飼料가되는 乾草는 畜牛飼育의 特徵한것을 問題로 朝鮮에서는 반드시不足이아니고 乾燥의調製가 未發達한데原因이잇다 農林局에서는 이點에 鑑하야 于先 基本的牧畜業의 飼料充實에 積極的으로 注力하기로되어 各道에 對하야乾草의 增産을奬勵하기로되엇다 提出하얏다한다

螢石과텅스텐 輸入稅引上要望
外國品壓迫으로作業不振

朝鮮의 特殊鑛物中 黑鉛은 이미 世界第一位의 産額을 示하야 重要輸出品으로 되어잇는바 이와가티 埋藏條件, 産出品位로 보아 國內自給을 圖할수잇슬뿐 아니라 나아가 輸出品으로 新販路를 開拓할수잇는 素質을 가진것으로 텅스텐과 螢石鑛이잇는데 이兩者는 모다 目下低廉한 海外品의 덤핑으로 그操業은 採算이안되게되어 本格的作業이 進行되지안는 狀況에잇다 即 텅스텐은 軍需鑛物로 重要性을 帶하는바 朝鮮內에도 各地에 豊富히 賦存되어잇스나 市價가 百圓市의 大市價落을 演함으로 開發이 遲延되어잇다 一方 螢石은 中國品이 繼續的으로 輸入되는結果 朝鮮內에서는 黃海 江原 咸南에 豊鑛이 發見되어 各히 作業하고잇스나 中國品과 競爭되고잇다 總督府殖産局에서는 이兩鑛業의 現狀에 鑑하야 日本內地의 關稅定率法改正이 新機運에잇슴으로 이 텅스텐과 螢石에對하야 輸入稅引上을 日本內地에 要望하기로되엇는바 그結果는 兩鑛開發에 큰 好響이 期待된다

甑山金組設立申請

【甑山】甑山金融組合은 大正十一年九月에 江西金融組合出張所로 設置되고 昭和四年六月에 支所로 昇格되엇는데 同七年末에 朴庭淳氏가 副理事로 赴任하얏는바 當時 組合員數는 三百九十八人이요 貸付金은 四萬五千餘圓 預金額은 五十二萬餘圓에 不過하든것이 約四個年間 區域內를 戶別訪問하며 組合의 趣旨를 宣傳하고 利用을 勸告하야 現今에는 組合員이 一千六百八十一人 貸付金이 二十五萬圓 預金이 八萬五千餘圓에 達하며 今年春에는 堂堂한 事務所를 新建築하고 今月二十一日에는 金組設立準備委員長江西郡守洪憲杓氏司會로 甑山金融組合設立會를 開催하고 多數組合員이 出席하야 定款을 圓滿히 決定하고 組合長一人 監査三人을 選定하고 總督府에 許可申請을

南海棉作大凶作

【南海】長霖과 颱風으로 各種農作物이 慘酷한 被害를 當하얏거니와 今年부터 大奬勵의 棉作도사 慶南南海郡의 棉作도 風雨의 暴威로 八割에 갓가운 減收를 豫想한다는데 今月二十一日 郡農會의 調査發表를보면 다음과갓다 今春의 豫想으로는 全郡播種面積一六〇四町二段 收穫豫想高二四〇萬斤(段當百五十斤) 販賣豫想高百五十萬斤 價額二五、五千圓이든것이 九月現狀으로는 立木段別一五〇三町(百一町流失 浸水) 收穫豫想 七十萬斤 販賣豫想四十萬斤이라한다

水災와冷害로 農作物大凶
榮州地方民心不安

【榮州】水害渦中의 慶北榮州地方은 家屋의 倒壞流失等과 人畜死傷等 被害는 空前의 大慘狀이라함은 累報한바어니와 農作物의 被害조차 酷甚하야 全郡耕地 一萬六千五百町步中 收穫皆無地가 田畓一千四百三十四町九段으로 被害地復舊工事費도 相當한 數字를 示할터이며 뿐만아니라 現在남어지 農作物도 津月의 長霖으로 發穗가不完全한데다가 더욱히 日氣의不順은 每日低溫이 繼續하야 發穗된 穀物도 結實이不良하게되야 民心은 자못不安에싸히어잇다한다

東海水産不遠竣工

【淸津】東海岸에 君臨하야東洋第一을 자랑하는 淸津漁港에는 大規模의 水産加工工場이 十餘個가 林立하야 黑煙을吐하고잇스나 朝鮮人經營의 工場은한개도 업서오든중 去五月以來로新岩淸年實業家蔡卿東 蔡鶴林兩氏가 主가되여 東海水産工業株式會社가 五十萬圓資本金으로設立되야 漁港에 紅一點을 뵈이는바 그間 工場建築이 順調로 進行되야 不日間 工場과 事務室이 竣工되리라한다

水産檢査의獨立 十二年度에實現

水産製品檢査는 現在各稅關에서 行하고 잇는바 水産製品의 向上振興上 일즉이穀物檢査所와가티 檢査機關의 獨立이 硏究되고잇든바 右는 十二年度豫算으로 財務局査定을通過하야 大體 十二年부터 實現을 보게되엿다 이는 京城에 水産檢査의 本所를 置하고 主要地 五、六個所에 支所를 置하며 그出張所를 設하야 搬出檢査를 行할豫定으로 朝鮮內水産製品의 品質向上에 큰效果가 豫想되고잇다

燃料飢饉은 解消될貌樣

工業上과 家庭의 燃料需要에 依하야 朝鮮內石炭消費量은 十年의 二百九十萬噸에서 今年에는 三百三十萬噸으로 激增되어 前年以上 深刻한 燃料飢饉이 豫想되고잇는데 그後 增産과 供給의 努力으로 不足分 克服으로 朝鮮內의 今冬供給不足은 解消되리라한다 朝鮮內의 今年石炭需要는 上期中에 이미 前年比二十萬噸을 增加하얏는데 이準備로 總督府에서는 內地炭及 滿洲炭의 入荷를 促進하고 朝鮮內炭의 增産을 指導한結果 今年의 需要增大四十萬噸餘는大體 供給을行할수잇스리라한다 一方家庭用炭으로 問題되어잇는 煉炭은 피치 不足이 憂慮되어 朝鮮煉炭에서 苦心調査한結果 朝鮮의 石炭低溫乾溜의 副成피치를 充用하기에 이지음成功하야 煉炭의 供給도 憂慮가 一掃하게되엇다

浦項多年의懸案 獸疫檢査所設置
明年度豫算에經費를計上

慶北浦項에잇서서 二大懸案으로 地方民이 多年間 當局에 要望한 港灣修築及獸疫檢査所의設置는 此中 港灣修築은 地方振興土木事業으로써 今年度에 十八萬圓 二個年繼續三十六萬圓이 容認되어 懸案의 一部는 解決하엿고 獸疫檢査所의 設置는압으로 걸리여잇든바 今番 總督府十二年度豫算編成에 計上하게되어 浦項多年의 懸案은 이로써 解決되어 明年度에잇서서實現할것이라한다

牛移出近四萬頭 運賃節約多大
生産者負擔輕減

港灣이 完成되고 獸疫檢査所가 明年度浦項에 實現될時는 貿易港浦項은 다시 畜牛의 移出港으로되어 慶南北道, 江原道等地의 畜牛의 大部分은 浦項을通하야 移出될것이라한다 此에對하야 浦項邑의 調査에 依하면 畜牛移出能力은 約三萬八千頭이며 移出地는 慶北의 十五個郡 江原道四個郡 忠北道의三個郡 慶南의 一個郡으로 實로二十三個郡의 畜牛는 浦項에서 檢査를 受하야 移出한다고하며 慶南釜山보다 浦項에서 移出

各地秋繭共販

▲善山 善山地方에서는 秋繭共販을 二十二日부터 左의販所에서 實施키로 되엇다 ▲善山郡農會共販所 ▲長川共販所 ▲龜尾共販所

▲安溪 慶北義城郡農會에서는 郡是製絲인 片倉會社와 協定한結果 지난二十一日부터 安溪

▲奉化 慶北奉化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一日부터 秋繭共同販賣를開始하엿다는데 그價格은 左와如하다 (九月二十四日現在)
▲特上 三圓四十一錢 ▲特等 三圓十九錢 ▲一等 二圓八十九錢 ▲二等 二圓五十錢 ▲三等 二圓二十九錢 ▲玉繭 一圓四十五錢

▲特上 三圓四十四錢 ▲特等 三圓二十二錢 ▲一等 二圓九十二錢 ▲二等 二圓六十二錢 ▲三等 二圓三十二錢

當時는 前年의 關係上 一圓以上 大阪方面은三圓 東京方面은 七圓가량의 運賃이 減少되며 最低移出高二萬頭에 平均七圓의低賃으로 實로 十四萬圓이 節約되는 同時에 生産者인 農民의 負擔이 輕減될것이라한다

秋繭取引市勢 (對生繭一貫價格)

月日	場所	最高	最低	平均	數量
九·二二	平北昌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二四	慶南居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二五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海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南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一六	全北井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錦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孟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寧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咸北鏡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一六	咸北鏡城(鳳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朱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海鳳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忠南燕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一七	全北完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南咸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忠南瑞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五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六	全南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北錦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忠北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商工業者의苦衷 ③
滿浦線의開通과 商圈分野의變動

▲滿浦鎭
一、自働車貨物의 運賃低減과 乘合自働車의 增發을 바라다
二、實力잇는 資本家가 新興의 滿浦鎭으로 와서 만히 投資하기를 바란다

▲江界
一、製材價格의 協定을 原木業者에게 미리 通知하라
二、製材及原木業者의 共存共榮策을 講하라
三、改良品種인 平北大豆 江界一六號를 過待하라
四、新義州로부터 江界에支店出張所를 增設하야 商業在來의 發展을바란다

그他 各地로부터 一齊히 國境拓殖鐵道敷設의 促進을運動하얏는데 鐵道의 敷設이 國境에對한 모든 問題의 根本的解決策인 點을 주엇다 鴨綠江水力發電, 製紙新設等에對한 熱望도 相當히 激烈하얏다

對策에對한參考
(一) 農村運動과經濟

農村振興, 自力更生 運動으로 因하야 참으로 農家經濟가 更生이 된다하면 必然的으로 生産物增收가되고 따라서 購買力增大로되여 商業上에 好影響을 齎來할것은 말할것도업지만흔 아직 鴨綠江上流及 滿浦線沿線地方의 農村振興運動은 그域에까지 到達하지 못하얏다 一部都市와 가튼곳에는 消費節約 運賃排除等의 生活改善運動이 徹底化한 까닭에 消費經濟를 萎縮케하야 도리혀 商況不振의 現象을 보하고잇는곳까지잇다 그러나 이것도 一種의過渡的階段으로 農家經濟가 更生되면 當然히 一掃될것이라고생각된다 特殊事情으로 滿浦沿線은 鐵道建設景氣로 相當한 活氣를 띄고잇스며 또 鴨綠江沿岸地帶도 鑛山景氣 其他로因하야 漸次 經濟力이 培養되는中임으로 이와相俟하야 農振運動이 持續的으로 行하여진다면 現在보다 以上 有力한 新義州의背後地가 될것이다

(2) 江岸貿易의好轉

滿洲國의 發展에 伴하야鴨綠江은 從來 國防的河川이든것이 只今은 滿洲國과 朝鮮을 連繫하는 經濟的河川으로變하얏다 現在朝鮮對岸各地와 滿洲國對岸各地와의 貿易은 旺盛을 極하는中인데 今後對岸의治安이 確保되다고하면兩岸의 豊富한 資源開發과 同時에物資의 輸出入도 一層躍進할것이다 그리되면 水運에依하야彼我兩岸에 商圈을 가진新義州에 반드시 好影響을 齎來할것은 틀림업는 일이다 流商圈 今後의 推移에 對하야는 深甚한 注目을할 必要가잇다

(4) 交通機關의整備

滿浦線鐵道로因한 平壤商圈의 進出에 對抗키 爲하야는鴨綠江岸에 沿한 鐵道를 敷設함이 가장 急務이다 各地座談會에서도 貨物運賃의 低減 交通機關의 整備道路改修等을 猛烈히 부르지젓는데 이모든 問題의 根本的解決은 鐵道의 敷設을기다리는外에 他途가업다 目下工事中의 多獅島鐵道가 開通되고 또 多獅島築港이 完成되면 新義州를 起點으로 이와上流에 連絡하는 鐵道를 敷設케되면 運賃關係에 잇서서 도 平壤보다 떠러질것이업게되여 新義州의 商圈은 完全히 確保될것이다

이拓殖鐵道는 昭和三年總督府鐵道局에서 計劃하얏스나 東京政府의 非募債政策에 依하야 今日까지 實現되지 못한것이다 本線은 國境産業開發上으로보아도 速히 敷設하여야 될것이다

鴨綠江水力發電

工業의 振興과 動力과는떠나지못할 關係임으로 鴨綠江水力發電問題에 對하야는 過般 新義州商工會議所로부터 朝鮮總督府에 그 調査促進을 要望하얏든바 그後 急速히 實現化되며 滿鐵, 滿洲國實業部, 國道局, 電業公司及 朝鮮總督府에서는 共同調査班을 編成하야 가지고 今年六月廿一日부터 二個月間 實地調査를 하얏다 偶然히 碧潼에서 右實地調査中의 調査班主任技師 計劃部 鈴木義孝氏와 會見하야 調査의 實情을 聽取하얏는데 碧潼 及 滿浦鎭附地에서 江底를『보링』하야 可及的 渴水期中에 調査를 完了할 計劃이라하얏섯다 水力發電에는 最低落差五米를 必要로하는故로 堰堤發電으로 建設을한다면 一秒間에 約八十『키로론』의 水量이잇슴으로 五十萬키로 乃至 百萬키로의 發電은 可能한데 水路交通及流筏等에도 設備만하면 故障이업슬것이오 또 結氷期에對하야 長津江에서 旣爲 實驗濟임으로 그點은 何等憂慮할것이업다고한다 建設費는 一키로三五〇圓乃至三百圓의 豫想임으로 相當한 巨額의 資金을 要하나, 石炭을 消費치안코 無價物의 水力資源을 活用한다는것이 重要性을 띄고잇는모양갓다

日用商品市況

二十六日 京城市內의 海産物、砂糖及麥粉市況은大體다음과갓다

▲다시마 强保合
다시마는 秋季需要 旺盛期에 드리가 入荷나 賣行共히 活況을 呈하고잇는데 今日 한짝(二十四貫)에 十二圓 乃至 二十一圓가량으로 强保合이다

▲明太 活況
乾明太는 秋夕을 압두고需要가 大激增을 示하고잇는데 目下 朝鮮産의 入荷가 豊富하며 今日 한짝(三千두름)의 市勢는 二十一圓 乃至二十一圓五十錢가량이다

▲미역 不變
미역은 前週同樣으로 主로三陟長藿이 多少入荷를보고賣行도 普通程度인데 한손(二十白)의市勢는 二圓四十錢 乃至 二圓五十錢 六十五錢가량으로 前週와갓다

▲大口魚 保合
乾大口魚는 需要가 減退傾向에잇서 市況이 沈滯狀態인데今日每斤市勢는 二十五錢가량으로 保合이다

▲메르치 小騰
메르치는 入荷도 豊富하며 賣行도 良好狀態인데 今日市勢는 每貫에 二圓 乃至二圓九十錢가량으로 小騰을 示하얏다

▲암치 底强
암치는 入荷가적은 關係로 市勢의 强調를보아 한손(二尾)에 二圓 乃至 三圓五十錢가량이다

▲연어 好況
乾연어도 近日 一般家庭에서 만히들 消費하고잇스며 産地의 在荷도 豊富하야 入荷도 相當한데 今日市勢는 十二貫入한짝에 十圓 十貫半入한짝에 六圓五十錢가량이다

▲砂糖 保合
砂糖은 秋期需要期를 마저 市況이 好轉되고잇는데 六十斤(百斤)一俵에對하야

白砂糖	二一、二〇
黃砂糖	二〇、二〇
黑砂糖	一一、二〇
分蜜糖	一七、〇〇

▲麥粉 强保合
麥粉은 原料麥의 依然高價로 强保合을 示하야 二十二斤入一袋에 四圓八十錢乃至 四圓九十錢가량이다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廿六日現在)

物品合計 十三萬六千九百八十二點
穀物合計 三十四俵三斗八升四合

京城太平通二丁目 壬戌親睦會
計 二二三點
衣類 百六點 鉛筆 一六本 敎科書 六十七卷 全科自習書 一卷 雜記帳 二十二卷

新義州支局經由
衣 三八點 敎科書 三五冊
二七點 新義州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八點 德明學院生徒一同 敎科書三五冊 張信玉、李明玉、金沐道 二點 同金股奎

新高山支局經由
衣 二一〇點
十點 天主敎會神父 金順和 二十點 海星講習所生徒一同 百八十點 天主敎會婦人會一同

水原支局經由
計 九三二點
四九三點 三一學校敎員及兒童一同 ▲三八八點 三一女子普通學校兒童一同 ▲一五點 李根三 鉛筆三打 水原邑梅山里朴容植兄弟

仁川支局經由
計 八五三點
三〇五點 萬石町 仁川花島敎會 一〇點 萬石町 李甲柱 一七點 李弘柱 三九二點 敎科書五一冊 仁川永化女子普校職員兒童一同 運動靴一〇足 仁川牛角里主日學校兒童一同 六八點 松峴基督敎會

京城府惠化町 天主敎會
衣 三六二點 米 四升五合

金福山 二點▲曹木 三點 金明時 一點▲同上 洋襪半打 金마리아 四點▲權마리아 五點 方드시아 十點▲崔마리아 一四點 韓基英 二四點▲安敬順 一點 金마다레나 一升▲同上 一升 안수이 二點▲愈마리아米 三升 愈드시아 一升五合▲鄭松子 三點 金正勳 二點▲金마리아마다레 四點 ▲나 一二點

鐵原支局經由
衣 五〇九七點

鐵原監理敎會敎友一同 一九二點▲月井里監理敎會敎友一同 二點 承永根 一點▲藤原治四郞 五點 權章鎬 一點▲高齊鳳 四點 徐昀基 四點▲金學庚 二點 金明鎬 四點▲申雲鵬 五點 朴成玉 二點▲洪明根 三點 崔聖俊 一點▲朴淳石 二點 高道朱 一點▲姜文三 二點 申泰俊 四點▲朴鳳夏 三點 韓致三 一點▲宋成根 三點 許官根 五點▲齋藤深吉 一點 官武良男 二點▲西田勳 一點 劉乾坤 一點▲陳昌雲 一點 韓君範 四點▲大野孝太郞 二點 田中次夫 四點▲朴錫玉 三點 黃宗珠 五點▲姜昌培 三點 李永壽 七點▲裵獻煥 七點 野田巖 一點▲小宮山德治 六點 山本祖一 一點 杉原又一郞 四點▲金寶鶴 四點 山野井ヤスノ 三點▲朴德基 二點 梁相道 二點▲全學在 三點 松坂三四郞 四點▲金周德 三點 坂口常吉 七點▲元本興 六點 金東勳 三點▲全元淳 三點 金長伸 七點▲李大鳳 二點 南公三 四點▲沈載坤 一點 小寺新之助 六點▲邊基佑 四點 高容鎭 二點▲金在天 一點 崔炳燮 二點▲金明深 五點 林錫ふ 九點▲金鍾奎 五點 權姓女 二點

吳禹里 五點▲朴太玉 二點 李根洙 一點▲李成興 一點 吳龍鎭 一六點▲李興善 一點 趙聖弼 三點▲李貴文 四點 玄昌俊 一點▲李鎬成 二點 全東玉 二點▲栗山龍吉 二〇點 朴在根 一點▲元錫基 二點 金漢甲 五點▲金道燮 三點 金容圭 四點▲韓培敎 三點 李弘儀 八點▲金順輔 四點 李昌燗 八點▲長田淸一 七點 大津說夫 三點▲李相學 八點 任澤準 二點▲盧澤洙 四點 山室ツルオ 三點▲藥原チズ子 一點 松永ユイ 一點▲野崎カメ子 四點 黃殷式 三點▲元之宗 四點 永松次一 二點▲金德恒 四點 金知榮 五點▲朴成根 四點 宇和恒一 二點▲申漢文 七點 任百振 二點▲金慶燦 五點 金凡龍 二點▲杉山英造 一點 川崎宇七 五點▲朴容米 八點 金弘濟 二點▲金顯承 三點 李鳳奭 二點▲金廷培 二點 洪益杓 三點▲李鍾楠 三點 中下岩太郞 七點▲尹玉麟 二點 安藤鍬次郞 七點▲柳原元治 三點 太錫祚 四點▲殖銀支店職員一同 六點 淸野芳 七點▲徐村錫 一點 山下淸 二點▲金海勳 一點 中村政藏 一〇點▲辛稷默 二點 李辰玉 二點▲林容宣 二點 朴康緖 五點▲金英奎 三點 無名 二點▲佐藤辰子 六點 市木桑 一點▲金允澤 三點 金錫喆 八點▲大西 三點 田崎シズ 四點▲米田ムメノ 四點 李德基 七點▲鄭元濟 一點 西村保 六點▲金永植 二點 黃宗石 一點▲王宗燮 二點 金舜玉 一點▲金泳孝 二點 李光宰 一點▲黃甲秀 二點 王世鉉 一點▲朴春湜 三點 朴聖洙 二點▲許迎 一點 丁福禧 一點▲咸小春 四點 金千葉 四五點▲崔桂花 五點 朴弄仙 四五點▲李弄珠 五點 諸鳳玉 一點▲李定林 二點 崔映範 二點▲高大福 三點 鍾德良 三點▲張熙煥 三五點 金官鎬 四點▲裵秀洪 二點 尹好文 二點▲延秉斗 二點 丁殷鎬 七點▲沈相佑 一點 金允實 三點▲白南實 二點 李亨烈 一點▲金斗日 一點 金聖學 四點▲姜俊邁 二點 松江濫 六點▲裵明鎭 一點 宋在雨 五點▲宋允成 一點 李永實 一點▲朴銀京 六點 金明俊 二點▲羅石象 二點 朴順萬 八點▲金德龍 三點 金允極 二點▲奇善煥 九點 趙元植 八點▲鄭基泰 五點 黃炳元 五點▲金時澤 五點 郭德三 三點▲金鍾龜 二點 李載榮 二點▲李明善 四點 朴容直 五點▲盧良根 八點 二點

阿川美之助 二點▲木村忠治 一點 河在昆 八點▲元春先 一點 金有頗 四點▲金源奎 二點 嚴正植 一點▲尹相順 二點 元石山 二點▲林敬五 二點 趙貞植 二點▲黃元植 二點 金明敎 二點▲林正鉉 二點 韓明敎 一點▲鄭鍾福 二點 李弘學 二點▲徐永善 二點 姜雲學 二點▲具滋極 一點 嚴殷燮 一點▲宋範龍 二點 金基煥 二點▲趙東鉉 二點 皮道順 三點▲南景云 二點 吉原拾左衛門 二〇點▲李敬順 一點 黑崎菊藏 一點▲金逸成 一點 原田夏子 一點▲成三星 二點 朴露積 四點▲李相基 二點 李億奉 二點▲金凡進 一點 李碩賢 二點▲申明順 一點 元裕壽 三點▲李先龍 二點 郭聖壽 二點▲田正元 二點 田龍元 一點▲張武述 二點 李錫灝 二點▲朴春瑞 二點 金宗鉉 一點▲崔永俊 四點 鄭淵默 二點▲金泰潤 二點 金一童 三點▲金鳳洙 二點 權貞國 二點▲柳龍漢 一點 朴大用 三點▲石正鍊 九點 東興雲 二點▲崔玉順 四點 中元朝茂 三點▲松尾太郞 四點 羅井昌三 二點▲李命天 六點 金文卿 二點▲盧命煥 一點 高德順 二點▲劉銘 一點 朴孝緖 三點▲朴海鎭 五點 金榮爽 五點▲李昌成 四點 中本太一 三點▲李敏鳳 一點 朴用官 二點▲黃晌得 四點 李淳明 二點▲李炳興 二點 金順善 二點▲崔致浩 二點 金文萬 一點▲申益浩 三點 魯淵元 一點▲姜明淑 二點 李炳文 一點▲李甲準 一點 金在九 一點▲李日男 二點 鄭萬成 三點▲文祖權 一點 林炳圭 八點▲韓君範 二點 洪基植 一點▲尹相殷 二點 朴相國 一四點▲洪天秀 一點 金銀順 七點▲景永子 一點 吉萬學 四點▲金漢福 一點 洪大善 一點▲李鍾德 一點 李春伊 二點▲金炳官 二點 咸成煥 二點▲元濟賢 一點 金壬洙 四點▲金明月 二點 崔東煥 二點▲崔和春 一點 金守男 四點▲金炳洙 一點 千世昌 一點▲李舜泰 三點 李貴成 三點▲李俊吉 二點 姜先興 二點▲朴順善 一點 任浩淳 一點▲北田豊富 一點 李水龍 九點▲金三得 一點 嚴斗燮 五點▲夫泰植 一點 川島茂樹 六點▲平山林一 二〇點 浚慶植 四點▲韓仁九 一點 小宮山八郞 七點▲李桂龍 一〇點 山下巡査 三點▲林炳日 一點 元石山 三點▲望月貫一郞 九點 李永弼 三點 小坂茅男 三點 七點

李豐雨 一〇點▲南宮楠 一點 洪淳昆 三點▲柳弘錫 二點 金元浩 三點▲兒玉秋夫 一點 方昌奉 三點▲安雲龍 二點 朴莞錫 三點▲申鐵雨 一點 成樂俊 三點▲崔寅成 五點 全成烈 三點▲金伯烈 九點 河野仁市 一點▲李禧豐 四點 朴有緖 四點▲黃圭憲 三點 李鍾大 二點▲金鍾成 三點 金萬野 二點▲李長春 一點 黃丙燁 二點▲朴炳德 三點 宋在範 五點▲梅田氏 二點 高橋利雄 六點▲殖銀職員一同 五點 笠中立一郞 一點▲東松面一郞 一點 梶尾熊吉 一〇點▲姬野直百 一〇點 敵吳公普生徒一同 三五點 權嗣石 二點▲宋待鄕 五點 增田貫 二點▲相川巡査 七點 松岡巡査 四點▲牛島正太 八點 李容春 二點▲西川澄夫 一點 尹世東 三點▲久米巡査 二點 副島健吾 四點▲有働巡査 四點 金仁奉 二點▲山手巡査 五點 崔孟奎 二點▲角原市太郞 六點 安部順一 二點▲渡邊淸 三點 申定鎬 二點▲江崎壽男 八點 藤野巡査 二點▲安鍾祥 一點 大田卓郞 二點▲金三得 三點 北田豊 一點▲山下巡査 二點 李春植 二點▲尹成得 二點 吉田誠一 二點▲澤田一仲 一點 枝村氏 二點▲李興洙 四點 守道平 一點▲咸昌奎 二點 水野鎌吉 一點▲金大福 七點 豊田正五郞 一點▲第一金組職員一同 二點 壯日出經雄 一點▲李春植 五點 電鐵會社職員 一點 江原繩叺會社職員 九點▲鐵原小學校 九點 楠沼顯一 二點▲菩常小學校九 二點 李觀煥 三點▲千葉宗三 二點 吾間市郞 二點▲吉永巡査 一點 尹子惠 一點▲金仲秋 一點 藤原貞繼 二點▲柳根淑 一點 吉田豊治 四點▲秦昌燮 二點 金東垦 一點▲崔岸岳 一點 栗淸 一點▲伊東フク 一點 遠源技 四點▲吉尾勳 一點 藤原貞繼 三點▲李相洙 三點 金俊模 一點▲池譚寶 一點 茶園常吉 二點▲藤井正巳 四點 李善庸 二點▲神阪愼夫 九點 白石米雄 八點▲李春植 二點 熊本秀雄 二〇點▲久恒文男 七點 橫川弘治 二〇點▲安倍幸子 七點 中村堅善子 五點▲山本義男 七點 梅田茂樹 五點▲崔善福 六點 金炳照 五點▲關東旅館 五點 後藤堅二 二點▲姜鍾杰 五點 金榮祚 三點▲張命來 二點 金鍾植 二點▲谷山浪三 二點 幸田陀作 二點▲井上良次 三點 大曲繡子 四點▲近藤淸太郞 一〇點 鄭寅鎬 九點▲加藤豊 一〇點 米原先 五點▲戶田健次郞 四點 小川鍵治 三四點▲金炅承 五點 中央水組 一五一點▲白來勳 三點

金鍾喜 一點▲裵發子 五點 李永巖 四點▲李丙勳 二點 洪惠秀 二點▲李鍾旋 一點 朴來元 二點▲金鍾植 三點 鄭山月 四點▲宋明月 二點 安鳳任 一點▲柳德煥 三點 金順業 二點▲李德殷 一點 金聖玉 二點▲諸昌煥 一點 鄭泰鳳 五點▲榮光商會 一〇點 李相漢 二點▲金鍾鉉 二點 李甫淑 三七點▲權東根 二點 李逢培 四點▲金根燮 一點 金秀九 八點▲全鎬壽 二點 李能完 六點▲申泰煥 三點 金寬鎬 五點▲任宗秀 一點 崔世榮 二點▲金學彬 四點 李在實 二點▲金東奎 一點 鄭光運 九點▲金寶鎣 九點 郭維仁 五點▲李培根 一八點 文宇亨 五點▲陸昌壽 八點 申應淑 二點▲無名氏 二點 朴勝洼 二點▲黃致祚 二點 太丁得 二點▲李世潤 二點 李奉燮 六點▲李鍾植 四點 李奉燮 二點▲李泰濬 四點 金鳳俊 三點▲李基淵 三點 萬順姬 一點▲李圭錫 七點 金奉根 一點▲鄭春玉 二點 朴仕線 二點▲李玉東 二點 金鳳烈 三點▲姜寶田 一點 申欽基 四點▲朴文斌 四點 尹德奕 七點▲諸光弼 六點 李枝弘 二點▲陳在運 五點 諸勳大 二點▲金源河 五點 朴箕鎬 二點▲朴願洪 八點 李德一 一八點▲高五龍 八點 松下常吉 一點▲松坂政三 一點 尹仁炳 三點▲金仁龍 二點 尹泰應 三點▲康達浩 三點 桂長煥 三點▲奧村均 八點 李奎大 三點▲金完奉 八點 立野シゲノ 五點▲李福鎭 三點 朴忠緖 六點▲李錫年 三點 朴鍾應 六點▲李光夏 四點 崔致洪 四點▲朴勝儀 一點 金葉損 二點▲金鼎九 三點 印承鎬 七點▲文興在 二點 朴良培 八點▲朴洪緖敎科書二三冊 朴癸寅敎科書二三冊▲尹致英 五點 崔氏 九點▲吳文澤 二點 朴貞緖 二點▲朴星遠 五點 吳禹里 五點▲朴太王 一點

金鍾吉 一點▲咸壽基 五點 李漢成 二點▲韓玉彬 四點 沈熙碩 一點▲李在春 一點 金順鎭 二點▲金燦奎 一點 高應榮 三點▲李泰壽 五點 金英容 三點▲金公憲 六點 諏訪シゲノ 一點▲五島商店 三點 許應奎 一點▲車明子 一點 出村友晴 二點▲高敬英 一點 李敬均 一點▲全鳳祚 六點 李昌殷 二點▲金興龍 四點 李昌德 二點▲高安龜次郞 二點 李光植 一點▲崔秉斗 二點 李三植 二點▲全鳳寬 一點 崔敬順 二點▲李根奉 一點 李敏植 二點▲孫世昌 二點 李敬植 一點▲高德元 二點 金允麗 二點▲朴德鎭 一點 崔學奉 二點▲李道德 一點 李基昌 一點▲李枝求 一點 李基昌 一點▲宋永春 二點 玄炳俊 一點▲金鍾三 二點 辛玄湜 二點▲姜鍾求 一點 黃晩烈 一〇點▲黃泰老 二點 朴海秀 一點▲劉昌南 二點 金明植 二點▲黃永老 九點 黃衡老 二點▲李昌雲 一點 李榮柱 一點▲吳命福 二點 宋圭檢 二點▲閔慶鉉 二點 黃濟老 二點▲吳吉童 二點 黃直鉉 二點▲金元奎 一點 蔡相綴 二點▲韓聖浩 一點 李康益 二點▲李殷弼 一點 尹錫宇 一點▲尹一萬 一點 金元植 二點▲徐高造 一點 金敬燁 二點▲朴永秀 一點 高壽鳳 二點▲金興寬 一點 金龍福 二點▲金景福 一點 白命吉 六點▲白命福 一點 朴可男 一點▲朴正錫 二點 韓允喆 二點▲鄭正守 一點 池順集 三點▲鄭丸善 一點 鄭成萬 一點▲白世昌 三點 徐榮根 一點▲金亨鎭 二點 白南望 一點▲沈萬甲 三點 呉龍珠 一點▲李得學 二點 安伯根 二點▲呉萬仁 二點 吳順八 一點▲李得學 二點 李殷曾 四點▲村上國 二點 金根培 四點▲越智宏夫 九點 坂本謙 五點▲岸田幸雄 三點 金道鍊 三點▲岩佐勝義 三點 貢湊六平 二點▲木村忠治 二點

金成基 一二點▲武本善吉 九點 矢野武治 二點▲多久島哲郞 五點 川本一男 九點▲久波增吉 九點 大橋寅久雄 一點▲田中忠治郞 二點 伊藤友藏 一點▲宇土本止敏 一點 大久保秀 一點▲大西司 六點 藤井道之 二點▲今野榮藏 六點 內山高俸 二點▲杉村真雄 六點 青山 六點▲新村源吉 二點 草野和吉 六點▲高木壽治郞 六點 小宮佐留夫 六點▲長岡榮市 三點 金世煥 四點▲崔順甲 一點 文正奉 五點▲川崎惣一 四點 笠田豊 五點▲永山浩行 二點 若林義男 八點▲李英淑 一點 張美花 二點▲仁坂宇八 二點 僕貝巡査吉 一點▲渡邊作市 一點 沈敬元 一點▲李鳳鎭 一點 朴先女 一點▲吉基錫 一點 李弘伊 二點▲土山源次郞 七點 兒玉長左衛門 二點▲申道淳 二點 李永澤 二點▲金鍾燮 一點 郭昌錫 四點▲陳萬錫 二點 李永濬 二點▲金泰福 一點 金鍾斗 一點▲鄭俊永 一點 郭周燮 四點▲李景觀 二點 李任先 二點▲李昌德 一點 高洪權 四點▲金德順 二點 趙成國 七點▲金德順 一點 李亨植 九點▲申延豊 四點 吉義成 五點▲池昌淵 三點 鄭學天 二點▲宋燦烈 一點 金銀魚 一點▲方春子 六點 方喆熙 一〇點▲玄用俊 一點 崔香田 一點▲韓德 三點 李秋順 三點▲趙德五 六點 林仙玉 三點▲崔相榮 九點 金月仲仙 一六點▲金泰鉉 二點 李根浩 一點▲尹鍾洙 二點 高熙萬 九點▲李于根 七點 高陽權 三點▲鄭豊五 二點 張熙永 八點▲鄭永五 一點 任基弘 三點▲李昌福 一點 道守達 一點▲朴鍾厚 二點 白雲鳳 三點▲鄭雲仙 一點 池采鳳 三點▲申元順 一點 金鍾禹 一點▲宋在天 一點 金甲粟 一點▲李鍾燾 一點 白南俯 一點▲金浩鎬 一點 安殷五 一點▲金浩玉 八點 鄭星大 二點▲宋道源 一點 梁在漢 二點▲朱元燁 三點 姜成明 一〇點▲張世億 五點 李定玉 二點▲李在淑 五點 崔壽命 三點▲金松月 三點 宮澤完三郞 一點▲森田忠次 三點 西原了 二點▲李喆均 三點 韓東錫 五點▲池榮敏 三點 齋藤幸吾 一〇點▲中山萬 五點 今井佳次郞 二點▲松井學平 三點 鍛冶尾末人 一點▲世耶兵士 三點 長野寅一 二點▲李漢玉 六點 李豐雨 一〇點▲南宮楠 三點

黃昏 (189)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전후 (一)

려순이와 복술이가 찾어와 짐을 나서라고 할시욕에, 못바겨 정님이가 차자왓다.

『아, 정님이?……너 웬일이냐?』

복술이는 놀라며 이러케 물엇다. 그전 한공장에 잇슬때에도 피차 내왕이 업섯드니만치 오늘의 정님의래방은 천연 의외엿다.

『밤새 한번 차지온다면서……』

하고 정님은 무슨 이야기가 잇는듯이 머뭇머뭇하고 섯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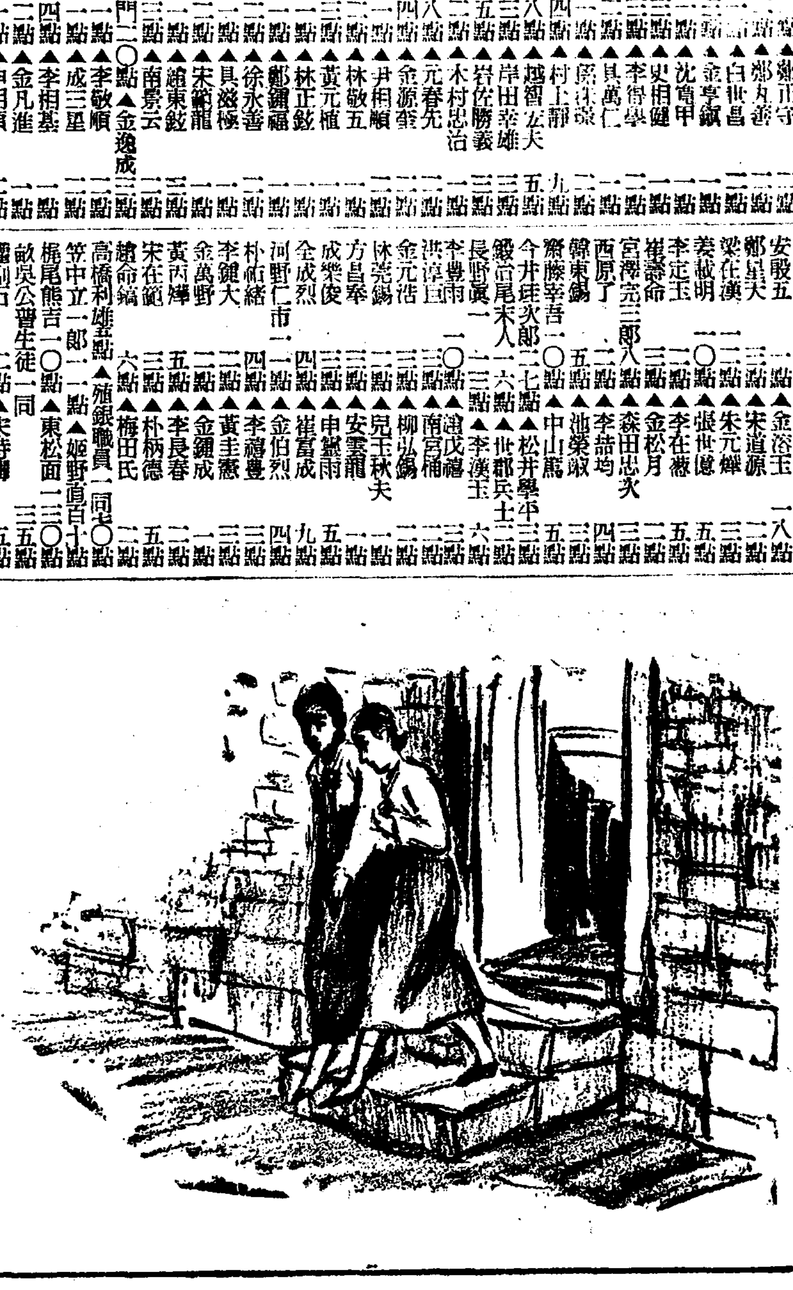
『어되 나가는길이냐?』

하고 뭇는다.

『응, 아니……잠시 산뽀나 나가볼까 하고……』

사실 산뽀가 아니라 조직이들과 약속한 시간이 잇서서 나가라는것이엇스나 그런 눈치를 보이지안키 위하야 복술은 참 좋간 이러케 둘러대엇다.

그러나 정님은 여전히 물아가라는 동정이 업시—그리면서 려순이가 겨레잇서서 얼른 말을 끄내지못하는듯이 서성그리고잇다.



복술은 곳 그눈치를 알아채고 려순에게,

『언니 혼자 가보저우……』

하고, 자기는 한걸음 뒤떠러저 혼자 갈테니 먼저 가는것이 조켓다는 의미로 슬적 눈짓을 하여 려순이를 먼저 내보낸다음 정님이와 자긔 방으로 들어왓다.

『그래 자미, 어떠니? 웬일이 과히 바뿌지나 안니?』

하고 복술이는 정님이와 마조안즈며 심상한 얼굴로 물엇다. 그러나 본래부터 정님에게 조치못한 감정을 가지고잇고, 도 지금은 피차 처지가 달려서, 그가 차자온데 대하야 공연히 뒤숭숭한 생각이낫다. 혹시 무슨 내탐으로 오지나 안헛나? 하는 의심도낫다. 그래서 속으로,

(요 사특한 년이 대체 무엇때문에 왓슬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한번 유심히 정님을 처다보는때에, 복술은 정님의 초최한 얼굴에 새삼스레 놀랏다.

그의 몸은 날신하너 아무데에도 활기가 업다. 살결만은 그전보다도 더히여진듯하나, 고것이 도리혀 볼괴맘이다 함께 여지어서 지러버리고 커칠어버린 증거인것가티 뵈엿다. 몸의 길을 것은 사람의 말로가 너무도 빨리, 너무도 처참히 닥아온것을 보는 늣김도 생겻다.

『재미가 다 뭐냐?……낭, 오』

복술은 개달앗다. 그래서 속으로 저윽히 증오심을 늣겻스나 힘써 그런 티를 내지안코,

『웨, 사장이 모처럼 불러올려갓다면서?』

하고 재처 물엇다.

『아니 누가 나가라말라 하는건 아니지만……그러트라도 그꼴보고 누가 잇니 글세. 죽으면 죽엇지……』

『웨?』

『년, 그사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상히 생각할거다만……말하자면 참 기가 막히다』

정님은 이러케 말하는 순간, 그사이지난일과, 그리는 동안에 삿삿이 얽힌 감정이 불현듯 되살아낫스나, 남에게 낫낫이 말할수도 업고해서,

『메칠전에 무슨 서류가 업허버렷대나……』

하고, 사장과자기사이의 추잡한 비밀과 그동안의 중첩한 곡절을 훌쩍 뛰어넘어 요사이 새로 이러난일로 말을 가저갓다—

『그걸 글세 날드러 집엇다는구나, 참 기가맥혀서……』

『아, 서류를? 그래서……?』

『그래서말이다 그걸 얼른 내노치안흐면 형사를 불러대겟다고 올르고 달래고 하단 말야……그게, 나가라는 말보다 더한거 아니냐?』

하고 정님은 하도 어이가 업는듯이 쓴입을 다신다.

정님은 그전보다는 천연 딴사람가티 침착해지고 무게잇서 고 수심스러워젓다. 그전과가튼 경망하고 요사스러움은 이슬가티 조곰도 차자볼수 업섯다.

그만해도 훨신 사람된것가티 가려서 복술은 놀라듯 동정하는 표정으로

『그만두다니? 웨 그만두어?』

하고 정다히 물엇다.

『눈물 치럼하게 잇니? 모다 내잘못이지……』

정님은 자기자신을 반성하는듯 정한 태도로 서글픈 웃음을 띄이고 이러케 말하엿다

『웨, 혐보가 나가라든?』

『아니, 혐보가 무슨 상관이냐? 그까지게 노굴 나가라 마라할 권리가 잇니?』

『그러면 무엇때문이냐?……오—, 참, 사장이 그러든?』

복술은 백긋 웃으며 이러케 물엇다. 혐보를 문제도 안되는 인물로 치라는 정님의 태도는, 말하자면 그보다 훨신 노픈 지위에 잇는 사람을 상대로하고 잇다는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